

○ 먼저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 응시 계열, 문형, 답을 표기할 때에는 반드시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에 따라 표기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1.6점과 2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고, 나머지는 모두 1.8점씩입니다.

1번부터 6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이제 여러분에게 우화 한 편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옛날 어느 곳에 아주 사이좋은 두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세상을 두루 구경할 목적으로 나그네가 되어 같이 길을 떠났습니다.

어느 날 이 두 나그네는 숲 속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이 도끼 한 자루를 발견했습니다.

"야! 이것 봐라. 오늘 내 운수가 좋은가 보구나."

하고 그 사람은 좋아서 얼른 도끼를 주웠습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친구가 언짢은 듯이 말했습니다.

"자네는 어쩌면 나라고만 한단 말인가. 그런 때는 우리라는 말을 쓰는 게 옳지."

다시 계속해서 그들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 때 마침 도끼 임자가 도끼를 찾으리, 헐레벌떡 되돌아오다가 도끼를 들고 있는 두 나그네와 마주쳤습니다. 도끼 주인은 다짜고짜로 그들을 붙잡고 도둑으로 몰며 싸우려 들었습니다.

그러자 도끼를 주운 사람이 친구를 돌아보며

"아아! 우리들을 도둑으로 몰다니 운수가 사납군."

하고 말하자 친구는 손을 저으면서 말했습니다.

"여보게, 자넨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 운수가 좋은 듯하면 '나'라고 하고, 나빠지니까 '우리'를 찾으니 참, 세상에 그런 법도 있나."

1. (물음) 이 우화를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는? [문제해설]

- ① '개인의 삶과 사회 생화,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라는 주제의 대중강연에서
- ② 새로운 세기에 걸맞은 공동체 의식의 확립을 촉구하는 시민 단체

의 담화문에서

- ③ 매사를 자신의 처지에 유리하게 이끌어 가는 친구에게 보내는 충고의 편지에서
- ④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기보다 남의 성실함을 허물로 여기는 세태를 경고하는 사설에서
- ⑤ 정책 시행에 앞서 집단 이기주의적 대응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는 신문의 공익 광고에서

[2] 이번에는 교양 강좌의 한 부분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우리말 바르게 사용합시다>라는 주제로 강좌를 개설한 이래 오늘이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식구들을 가리키는 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 짐작할 수 있겠지만 우리말에는 다양한 어법이 존재하며, 그것들은 매우 세밀하게 나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법들을 정확히 사용하는 일이 쉬운 것만은 아니어서 자기도 모르게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문제는 바로 그러한 어법 중의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선 일상 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사례를 한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들려 드리는 전화 통화 내용을 잘 들으면서 남성 통화자의 어법이 어떤 점에서 잘못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따르릉, 따르릉)

남 : 여보세요.

여 : 여보세요. 홍길동 씨 계십니까?

남 : 지금 안 계시는데요.

여 : 어디 멀리 가셨나요?

남 : 예, 지금 회의가 계셔서 참석중이십니다.

여 : 회의는 언제 끝나나요?

남 : 조금 있으면 끝나겠지만, 30분 후에 또 회의가 계시거든요.

여 : 아유. 그럼. 통화하기가 어렵겠군요.

남 : 예, 그러실 것 같습니다. 혹시 전하실 말씀이 계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여 : 아닙니다. 다시 전화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

남 : 예, 알겠습니다.

(찰칵)

2. (물음) 어법 사용의 잘못이 남성 통화자의 경우와 가장 유사한 것은? [문제해설]

- ① 그 가게가 어딘지 정확히 가르쳐 봐.
- ② 철수야, 선생님께서 교무실로 오시래.

- ③ 혜영아, 저녁에 서울역전 앞에서 만나자.
- ④ 어제 저녁에 한솔이네랑 외식 먹으러 갔었어.
- ⑤ 내가 너네 집으로 가는 것보다 너가 우리 집으로 와라.

[3] 이번에는 발표 수업의 일부를 듣게 됩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남 :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문화가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여 전통적인 문화 양식인 소설이 담당해야 할 고유한 몫이 그 비중을 더해 가

리라 생각합니다. 기계가 아닌 인간 중심의 정신 문화를 유지해 가는 데 소설의 허구

성과 같은 요소가 매우 유용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끊임없이 생각할 수 있는 존재

만이 기계에 맞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영화가 중심적인

문화 현상으로 자리잡고 있는 느낌인데 그것은 앞에서 예를 들어 설명했듯이 영화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여 : 질문이 있습니다. 저도 영화를 매우 좋아하는데, 영화는 전통적인 문화 양식으로서의

속성도 지니고 있고 디지털 문화의 첨병 역할도 할 수 있어 훨씬 중요한 장르가 되리라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 : 제가 중요시하는 것은 인간 중심의 정신입니다. 영화는 카메라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인데 그 렌즈는 바로 기계입니다. 인간 그 자체로 세상을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에 비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 : 하지만 카메라를 움직이는 것은 결국 사람 아닌가요?

남 : 물론 카메라에 대상을 담는 것은 사람이지만 기계를 통해 만들어진 화면 속에서

인간의 숨결을 느끼기에는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요?

여 : 영화의 화면 속에 사람의 숨결이 담겨 있지 않다는 것은 지나친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영화 관객들은 영화를 보면서 다양한 감정의 세계와 만나지 않습니까? 웃고 울고 하는

일 자체가 인간적인 것 아닙니까? 발표자께서는 영화와 소설을 너무 단순 비교하는 거

같은데요.

남 :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의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것은 사고하는 것 아닙니까. 소설은 독자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상상하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영화에는 그러한 사고 과정이 없다고 봅니다. 그저 보여

주는 화면을 따라가기에 바쁘지 않습니까?

3. (물음) 남성 발표자의 마지막 발언에 이어 여성 질문자가 제기할 수 있는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문제해설]

① 영화와 연극을 비교해도 되는데 왜 소설과 영화를 비교하셨지요?

② 소설과 영화라는 양식의 근본적인 차이를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③ 소설과 영화에 대한 친밀도가 다른 데서 오는 차이점을 고려하셨나요?

④ 카메라의 렌즈와 작가의 시선은 그 구조상 비교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⑤ 독자나 관객에 따라 읽고 보는 취향이 다르다고 하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4] 이번에는 방송 뉴스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앵커 : 네, 이미 10년 전에 멸종된 것으로 알려진 천연 기념물 장수하늘소가 경기도 광릉

숲에서 다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수하늘소는 수컷인데도 암컷의 모양을

하고 나타나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취재 기사를 연결합니다.

(음악)

기자 : 곤충 가운데 유일하게 천연 기념물로 지정된 장수하늘소. 예전에는 북한산과 강원도

산간에서 볼 수 있었지만, 최근 10년 동안에는 한번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멸종된 것으로 알려졌던 장수하늘소가 경기도 광릉 숲에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견된 장수하늘소는 수컷이 암컷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장수하늘소가 환경 파괴로 기형이 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1 : "이번에 발견된 장수하늘소가 그 모양이 암컷의 특징을 갖고 있는 그 변종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에"

기자 : 기형이라는 환경 단체의 주장과는 달리 광릉 수목원측은 다른 종류의 장수하늘소

라는 입장입니다.

인터뷰2 : "저희가 장수하늘소의 조사된 개체를 확인해 본 결과 수컷 중에서 동일종에서

나타나는 개체 변이의 일종이"

기자 : 카페와 호텔이 들어서고 차량 통행이 늘어나면서 최근 10년 동안 20여 종의 희귀

곤충들이 광릉 숲 주변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10년만에 다시

나타난 장수하늘소는 암수가 뒤바뀌었다는 논란과 함께 우리 곁에 찾아왔습니다.

4. (물음) 뉴스를 전하는 취재 기자의 태도는? [문제해설]

① 자신의 가치 판단을 중심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② 상반된 주장의 한 쪽만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③ 사실을 객점화하여 시청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④ 여론의 반향을 의식하여 보수적인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

⑤ 자신의 시각보다는 방송사의 입장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다.

[5~6] 강의의 내용을 잘 듣고, 5번과 6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러분은 대중 가요는 매우 친숙하게 생각하며 자주 즐기는 데 비해 판소리는 왠지 부담스러워 하고 멀리하더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판소리가 원래 어렵고 현대적인 감각과는 어울리지 않아서일까요? 전 단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낯설기 때문일 거라고 판단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바로 그 점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은 판소리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은 창이나 아니리, 발림, 추임새, 북장단과 같은 판소리의 구성 요소들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있지요? 아마 다 알고 있을 텐데 실제 판소리에서 그것들을 쉽게 구별해 낼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판소리 <흥부가> 중 '박타는 대목'을 들려 드릴 테니 어떤 구성 요소들이 나타나는지 식별해 보십시오. 참고로 각 용어들을 먼저 설명해 드리지요. 창은 창자가 고수의 북장단에 맞추어 노래하는 부분으로 이때 장단에는 중몰이, 중중몰이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리는 일상적인 말투로 이야기를 풀어 나가는 부분이며, 발림은 창을 하는 사람의 몸짓을 말합니다. 그리고 추임새는 '얼씨구', '좋다'처럼 고수와 청중이 창을 하는 사람을 격려하거나 자신의 감흥을 표출하는 말을 가리킵니다. 이제 조용히 들으면서 그것들을 찾아 구별해 봅시다.

[아니리]

"어찌 떨어 부어 났던지 쌀이 일만 구만 석이요, 돈이 일만 구만 냥이지. 홍보가 좋아라고 돈 한 권을 들고 잠깐 한번 놀아 보는데.

[중중몰이]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돈 봐라, 돈 봐라. 잘난 사람도 못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맹상군의 술래바쿠처럼 동글동글 생긴 돈, 생살지권을 가진 돈, 부귀 공명이 붙은 돈. 이 놈의 돈아, 아나 돈아, 어디 갔나 이제 오느냐, 얼씨구나 절씨구, 여보아라, 큰 자식아, 건넌말 건네가서 너의 백부님을 오시래라. 경사를 보아도 우리 형제 보자. 얼씨구나 얼씨구, 절씨구. 여보시오. 여러분들, 나의 한 말 부자라고 자세를 말고 가난타고 한을 마소.

어떻습니까? 쉽게 찾아 내고 구별할 수 있지요. 잘 들어 보면 누구나 쉽게 구별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정도면 판소리를 즐기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을 갖추고 있는 셈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소리에 쉽게 다가가 즐기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낯설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문화란 무엇입니까? 생활 속에서 판소리를 접할 기회가 별로 없었고 그러다 보니 낯설게 느끼는 것이지요. 우선은 가까워져야 합니다. 이것은 태도의 문제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태도를 바꾸어 보십시오.

5. (물음) 들려 준 판소리 대목에 나타나는 구성요소들을 바르게 든 것은? [1.6점][문제해설]

- ① 창, 북장단
- ② 아니리, 추임새
- ③ 창, 추임새, 북장단
- ④ 아니리, 추임새, 북장단
- ⑤ 창, 아니리, 추임새, 북장단

6. (물음)이 강의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한 학생의 태도로 적절한 것은? [2점] [문제해설]

- ① 도서관에서 판소리의 역사와 이론에 대해 좀더 자료를 찾아봐야겠어.
- ② 판소리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일상적인 것으로 봐 당도록 자주 들

어야겠어

- ③ 판소리를 한 번을 듣더라도 꼼꼼히 들으면서 분석을 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군.
- ④ 판소리와 대중 음악을 비교해 들으면서 어느 쪽이 듣기에 편한지 판단해 봐야지.
- ⑤ 명창들의 계보를 조사하고 그들의 음반을 들으면서 서로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는 것이 좋겠어.

이제 듣기 문제가 끝났습니다. 7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7.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는 홍보물을 만들려고 한다. ㉠에 들어갈 문구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제해설]

- ① 삶, 그 처절한 몸부림
- ② 생명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
- ③ 성공은 과연 노력한 자의 몫인가
- ④ 가고 싶은 곳, 다시 오고 싶은 곳
- ⑤ 구원의 신호인가, 파멸의 손짓인가

8. 아래 지도를 보고, <보기>와 같은 구상을 하였다. 글을 완성하기 위한 자료 수집 및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문제해설]

<보기>

㉠ 문제제기 : 전통적으로 대륙지향적 사고를 해 왔다

㉡ 사고전환 : 지리적으로 환태평양 시대의 중심 국가가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

㉢ 제언 : 세계로 뻗어 가기 위해서는 해양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 ① 북방 진출을 추진했던 역사적 사례들을 수집하여, ㉠의 근거로 활용한다.
- ② 한반도를 호랑이 모양으로 그린 지도와 토끼 모양으로 그린 지도에 대한 국민 선호도를 조사하여, ㉡의 근거로 활용한다.
- ③ 환태평양 국가들 중에서 우리 나라가 지리적으로 항공 및 해양 교통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찾아, ㉡의 근거로 활용한다.
- ④ ㉢의 당위성을 높이기 위해, 남북이 뒤바뀐 이 지도를 삽화 자료로 활용한다.
- ⑤ 우리 나라 수출입 화물의 대부분이 해양을 통해 운송됨을 입증하는 통계 자료를 수집하여, ㉢의 근거로 활용한다.

9. 구상한 내용을 수정하거나 상세화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문제해설]

- ① ㉠ ② ㉡ ③ ㉢ ④ ㉣ ⑤ ㉤

10. 교장 선생님께 풍물반을 만들어 달라는 요지로 글을 쓰기 위해 떠올린 생각들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문제해설]

- ① 여행을 좋아하시지. 해외 여행도 여러 번 다녀 오셨어. 그래, 우리도 우리가 좋아하는 풍물을 마음대로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자. 이 기회에 전통 놀이반, 민요반도 만들어 달라고 하자.
- ② 우리 학교 교훈이 '협동'이지. 풍물의 장단이나 춤사위는 여러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고 호흡이 맞아야 되잖아. 그러니 풍물은 협동심을 기르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자.
- ③ 서예나 민요 같은 전통 문화에 관심이 많으시단 말야. 훈화 때에도 전통 문화의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하셨어. 그러니까 풍물도 우리가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전통 문화의 하나라는 점을 말씀 드리면 좋겠어.
- ④ 풍물반이 각종 학교 행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자. 그러기 위해 열심히 연습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이웃 학교를 예로 드는 것도 괜찮겠어.
- ⑤ 우리 의견에 귀를 잘 기울이시는 편인데, 학생들이 풍물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드리지? 맞아, 지난번 시민 회관에서 풍물 공연이 있었을 때 많은 학생이 자발적으로 관람했다는 것을 강조하면 될 거야.

[11~12] 초고쓰기를 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우리 나라 사람들은 과정이야 어쨌든 결과만 빨리 얻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과정을 소홀히 하고 결과만을 빨리 얻으려는 이러한 결과 우선의 사고는 과학 기술 분야에 서도 예외가 아니다. ㉢기초 과학 분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지금까지 나날이 발전하는 첨단 기술이라는 열매를 어떻게 하면 빨리 딸 수 있을는지만 생각했지, 그 열매가 어떤 기후에서, 어떤 자양으로, 어떻게 자라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외면해 왔다. ㉤그렇수록 과학 기술의 결과 우선 주의가 공허한 바가 없는 것은 아니나, 기초 과학 분야를 도외시한 채 당장 써먹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응용 과학 분야만을 추구하는 것은 ㉥바보 같은 것이다.

11. 밑글을 고쳐 쓰기 위해 여러 사람이 의논하고 있다. 적절하지 않은 의견은? [2점]

[문제해설]

- ① ㉠을 더욱 설득력 있게 만들 수 없을까? 예를 들면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와 같은 속담을 이용 한다면....
- ② ㉡은 바로 앞 문장에서 나왔던 내용이니까, 삭제해도 괜찮을 것 같아.
- ③ ㉢은 앞뒤 문장과 연결이 어쩐지 자연스럽지 않아. 맨 뒤로 보내서, 이글의 중심 내용으로 삼으면 좋겠어.

- ④ ㉣은 앞뒤 문장의 내용을 제대로 연결해 주지 못하는 것 같아.'그러면'으로 바꾸면 어떨까?
- ⑤ ㉤은 품위도 없고 또 어떤 점에서 그러한지 드러나있지 않아. 아,'근시안적인 처사'라고 하면 좀 나아 지지 않을까?

12. 맞춤법에 어긋난 것은?[문제해설]

- ① 어쨌든 ② 소홀히 ③ 나날이 ④ 있을런지만
- ⑤ 채

[13~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세종이 조선 시대의 역대 왕 중에서 제도의 정비와 문치에 가장 많은 업적을 남긴 군주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정에 맞게 음악을 정리하여 나라의 연례(宴禮)에 사용하도록 한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음악을 정리한 그의 업적은 훈민정음을 창제하여 백성 사랑의 정신을 실천한 것과 더불어 위대한 문화 애호 정신의 발로라 할 만하다. 세종은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음악에 정통하였다. 『세종실록』에 실린 다음의 기록은 그의 음악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예가 된다. 세종은 박연이 제작한 경(磬)*두 틀과 중국에서 도입한 경한 틀을 시험해본 다음, 중국의 경은 음이 잘 맞지 않지만 박연이 만든 경은 바르게 된 것 같아 기쁘다고 하면서, 이척(夷則)* 하나의 소리가 약간 높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이척은 서양 음악에서 'G#'에 가까운 소리인데, 이처럼 반음의 미세한 높낮이까지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은 결코 보통사람의 음악적 소양이라 하기 어렵다.

세종은 우리 나라의 음악이 모두 잘 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중국에 뒤질 것도 없다고 보았다. ㉠중국의 음악이라고 하여 반드시 바른 것은 아니며, 따라서 우리 나라의 고유한 음악을 새로 제정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음악을 중국의 음악과 대등한 것으로 인식한 것은 오늘날의 관점에서도 충분히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일이다. 고려 시대부터 전해 온 향악(鄕樂)보다 중국계 속악인 당악(唐樂)과 송나라에서 들어온 아악(雅樂)이 중시되었던 당시 상황에서 우리의 음악에 대해 이와 같은 생각을 가졌다는 사실은 세종의 음악관이 매우 주체적이고 선진적이었음을 웅변해 주고 있다.

세종은 종묘 제례에 중국과는 다른 우리의 음악을 사용하고자 하였다. 당시에는 종묘의 제례에서 당악을 먼저 연주하고 삼헌(三獻)*에 이르러서야 우리 나라의 전통 궁중 음악인 향악을 연주하는 실정이었다. ㉡나아가 세종은 제례에서는 물론 사신을 접대하는 회례연(會禮宴)에서도 향악을 제외하고 중국계 아악만을 사용하고자 하는 당시의 흐름이 우리의 고유한 음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고, 새롭게 출발한 왕조에 걸맞은 음악을 제정하려 하였다. 그는 신하들에게 조상들이 평소에 듣던 음악을 제례와 회례연에 쓰는 것이 어떠할지 상의하라고 명한 바, 여기서 우리 음악에 대한 그의 주체적인 자세를 다시 엿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세종이 중국의 음악에 대해 배타적인 자세만을 견지한 것은 아니었다. 중국계 아악에 편성되는 악기를 새로 제조하거나 아악을 정비하는 사업에 막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것은 국수주의적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 외래 음악의 좋은 점을 수용하려는 의도였다. 세종이 박연 등에게 조회에 사용할 아악을 정리하라고 명한 다음의 언급은 그러한 사정을 명확히 보여 준다.

내가 조회(朝會)에 사용할 아악을 창제하고자 하는데, 예로부터 법을 세우고 창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어떤 때는 임금이 하고자 하는 바를 신하가 저지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신하가 하고자 하는 바를 임금이 듣지 아니하기도 한다.

㉔위와 아래에서 모두 하고자 하여도 시운(時運)이 불리한 때도 있는데, 지금은 나의 뜻이 먼저 정해지고 또 국가에도 별다른 일이 없는 좋은 기회이니 최선을 다해 이 일을 이루도록 하라. 그러나 당시 음악을 정리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사람들은 중국계 아악의 정리에 심혈을 기울이면서도 향악은 상대적으로 홀대하였다. 그 때 참여했던 인물 중에 "가정에서 삼현(三絃)* 가무를 가르치는 일은 실로 집안을 망치는 근원이니 삼가 그러한 뜻을 갖지 말라. ㉕금슬(琴瑟)*은 정악의 그릇으로, 예로부터 군자가 늘 곁에 두고 이것으로써 성정(性情)을 길렀으니 조용히 스스로 연주함이 옳을 것이다."라고 자손에게 유훈(遺訓)을 남긴 사람이 있다는 데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세종이 "아악은 본래 중국의 음악인데, 그것을 제례에 사용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살아서는 향악을 듣다가 죽은 뒤에는 아악 연주를 들어야 하니 옳은 일인가?" 라고 한 것과 명백히 대조된다.

세종은 처음 의도와는 달리 종묘 제례 음악이 중국계 아악으로 바뀌어으로써, 그의 주체적인 음악 정책은 만족할 만한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그러나 세종의 음악 정책과 거기에 깔려 있는 자주적인 음악 애호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의 국악이 서양 음악에 밀려 합당한 자리를 차지 못하는 상황에서, 창조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이정표를 제시해 준다.

- 정 : 악기의 이름
- 이척 : 동양의 십이 음계에서 아홉째 음
- 삼현 : 제사 때 세 번째 술잔을 올리는 일
- 삼현 : 거문고, 가야금, 비파
- 금슬 : 거문고와 비파

13.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문제해설]

- ① 세종은 제례 음악에 향악을 주로 사용하려 하였다.
- ② 세종은 박연 등을 통하여 향악을 정리하려 하였다.
- ③ 세종은 우리 나라와 중국의 음악을 대등하게 인식하였다.
- ④ 세종의 음악 정책은 아악과 향악의 조화를 꾀하려는 것이었다.
- ⑤ 세종은 미세한 음의 차이까지 구별할 정도로 음악적 소양이 있었다.

14. <보기>는 정인지가 쓴 『훈민정음』 서문의 일부이다. ㉑의 주장과 상통하지 않는 것은?
[2점] [문제해설]

<보기> 천지 자연의 소리가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표기할 글자와 글이 있다. 그래서 ㉑옛 사람이 그 소리를 바탕으로 하여 글자를 만들어서 만물의 정(情)을 통하게 하고, 삼재(하늘, 땅, 사람)의 도리를 실었으니, 후세 사람이 선인이 만든 글자를 함부로 바꿀 수 없었다. 그러나 ㉒사방의 풍토가 다르고, 사람의 발음도 이에 따라 다르다. 대개 중국 이외의 외국어는 중국어와 다른 그 언어의 음이 있으나 그 음을 기록할 글자가 없어서 중국의 글자를 빌려서 쓰고 있다. 그러나 ㉓이것은 마치 둥근 구멍에 모난 자루를 낀 것과 같이 서로 어긋나는 일이니 어찌 능히 막힘 없이 통달하겠는가! 그러므로 ㉔중요한 것은 각각 처해 있는 바를 따라 편하게 할 것이지 억지로 똑같이 할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㉕우리 동방은 예악, 문장등 문물 제도가 중국과 견줄 만하나 우리말과 사투리는 중국과 같지 않다.

- ① ㉑ ② ㉒ ③ ㉓ ④ ㉔ ⑤ ㉕

15. 상황 인식과 대처 방향이 ㉔과 유사한 것은? [2점][문제해설]

- ① 구보는 다시 밖으로 나오며, 자기는 어디 가 행복을 찾을까 생각한다. 발 가는 대로, 그는 어느 틈엔가 안전 지대에 가 서서, 자기의 두 손을 내려다 보았다.
- ② 현대인은 너무 약다. 전체를 위하여 약은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 자기 본위로만 약다.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위하여 영리한 것이 아니라, 당장 눈앞의 일, 코앞의 일에만 아름 아름하는 고식지계(姑息之計)에 현명하다.
- ③ 날씨는 급격히 변화되어, 이 골짜 저 골짜에 안개가 자욱하고 음산한 구름장이 산허리에 감기더니, 은제(銀梯), 금제(金梯)에 다다랐을 때 기어이 비가 내렸다. 젖빛 같은 연무(煙霧)가 짙어서 지척을 분별할 수 없다.
- ④ 홍보 치레를 볼작시면, 철대 부러진 현 파립, 버레줄 총총 매어 조새 갓끈을 달아 써, 면자 떨어진 현망건 밥풀 관자 노당줄을 뒗통 나게 줄라매고, 떨어진 현 도포 실띠를 총총 이어 고픈 배 눌러 띠고, 한 손에다 곱돌 조대를 들고, 또 한 손에다가는 떨어진 부채 들고, 죽어도 양반이라고 여덟 팔자 걸음으로 엇비식이 들어간다.
- ⑤ 새봄이 온 세계에 돌아와 만물의 소생을 재촉하는구나. 흑심한 추위가 사람의 숨을 막아 꿈쩍 못 하게 한 것이 저 지난 한때의 형세라 하면, 화창한 봄바람과 따뜻한 햇볕에 원기와 혈맥을 떨쳐 펴는 것은 이 한때의 형세이니, 천지의 돌아온 운수에 접하고 세계의 새로 바뀐 조류를 탄 우리는 아무 주저할 것도 없으며, 아무 거리낄 것도 없도다.

16. ㉔과 잘 어울리는 것은?[문제해설]

- ① 갑론을박(甲論乙駁)
- ② 공평무사(公平無私)
- ③ 동문서답(東問西答)
- ④ 천재일우(千載一遇)
- ⑤ 백년하청(百年河清)

17. 세종의 음악 정책에 담긴 지향점과 거리가 먼 것은?[문제해설]

- ① 우리 문화의 세계화
- ② 문화적 정체성 확립
- ③ 민족 문화의 활성화
- ④ 전통 문화의 재인식
- ⑤ 외국 문화의 창조적 수용

18. '㉕금슬(琴瑟) : 부부의 금실이 좋다.'의 관계와 가장 비슷한 것은?[문제해설]

- ① 고간(庫間) : 공간이 비었다.
- ② 세월(歲月) : 세월이 빠르다.
- ③ 중생(衆生) : 짐승보다 못하다.
- ④ 내외(内外) : 서로 내외를 한다.
- ⑤ 우뢰(雨雷) : 우레 소리가 크다.

[19~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인간만이 ㉠말을 한다는 주장을 인간 중심의 사고로 보는 견해가 있다. 벌이 춤으로 꿀에 대한 정보를 비교적 정확히 알려 주듯이, 인간 이외에도 의사 소통 수단을 가진 동물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동물의 의사 소통 수단과 인간 언어의 차이를 알기 위해 인간 언어의 특징 몇 가지를 알아보기로 한다.

(나) 우선, 언어 표현과 그것이 지시하는 내용사이의 결합이 자의적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같은 의미를 가진 말을 언어마다 달리 발음하는 사실만으로도 쉽게 확인된다. 간혹 ㉡의성어의 경우는 이 관계가 필연적이라는 이의가 제기되기도 하지만, 여기에도 필연성은 없다. 예를 들어 국어로는 개가 짖는 소리를 '멍멍'이라고 하지만 러시아어로는 '가브가브'라고 한다. 이는 우리가 지각한 소리에 대한 언어 표현이 꼭 그래야 할 필연성이 없음을 보여 준다. 게다가 실제 소리와 언어 표현은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소의 울음을 국어에서는 '음매'라고 발음하지만, 소는 그 소리대로 울지 않는다. '음매'라는 발음으로 우는 소가 있다면 그 소는 한국어를 구사하는 소라고 하겠다.

(다) 의미에 대한 언어 표현이 언어 사회마다 다른 것은 이들을 연결시키는 약속이 다른 데서 기인한다. 이러한 연결이 약속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아래의 예를 통해 살펴하기로 한다.

수업시간에 선생님께서 연필을 달라고 하셨다. 연필을 드렸더니 그게 아니라고 하시면서 공책을 집으셨다. 그리고는 앞으로 이 수업 시간에는 공책을 '연필'로, 연필은 '공책'으로 부르자고 하셨다. 선생님께서 다시 '연필'을 달라고 하셨다. 나는 얼른 공책을 드렸다.

의사소통이 되지 않다가 새로운 약속을 하니까 의사 소통이 이루어졌다. 이는 언어의 내용과 표현이 약속에 의해 결합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일단 사회에 수용된 약속은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라) 벌들도 서로의 약속이 없다면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벌의 춤은 한정된 정보만 전달한다. 반면 인간은 한정된 수의 음소 및 단어와 그것들을 결합시키는 규칙을 토대로 새로운 단어와 문장 등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렇게 유한한 요소로 들어보지도 못한 새로운 표현을 창조해 내는 것이 인간이다. 이러한 특성을 창조성이라고 한다.

(마) 인간의 언어는 지금 여기에 없는 대상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 어제의 일이나 다른 곳의 일을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국어의 경우 과거의 사건은 어미 '-었-'으로, 다른 곳의 사건은 '저기에서'와 같은 부사어로 실현시킨다. 이처럼 현재 여기에 없는 상황을 전달하는 것을 ㉢전위(傳位)라고 한다.

(바) 이상에서 인간 언어의 특징 몇 가지를 살펴보았다. 인간의 언어와 동물의 의사 소통은 내용을 전달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위에 든 특징들은 인간과 동물의 의사 소통 수단을 구별해 주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19. 윗글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한 것은?[문제해설]

- ① 사고의 범위는 언어의 범위보다 좁다.
- ② 인간은 언어의 약속을 가지고 태어난다.
- ③ 동물과 인간은 의사 소통 방법에 차이가 없다.
- ④ 일상적인 언어 생활에서도 창조성이 실현된다.
- ⑤ 언어가 내용과 형식을 모두 갖추어야 할 필요는 없다.

20. 윗글로 볼때, (다)의 특징이 생기는 이유는?[문제해설]

- ① 인간 언어에 보편성이 있어서
- ② 국가에 따라 언어 규범이 달라서
- ③ 언어마다 독특한 어휘 체계가 있어서
- ④ 인종마다 청각 기관의 구조가 달라서
- ⑤ 말소리와 의미의 결합에 자의성이 있어서

21. (라)에서 설명한 인간 언어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은?[문제해설]

- ① 전하고 싶은 바를 춤으로 표현한다.
- ② 작품성이 뛰어난 시를 외워서 낭송한다.
- ③ 인간과 벌 사이의 의사 소통 수단을 고안한다.
- ④ 이미 있던 단어를 합성하여 새 단어를 만든다.
- ⑤ 영어를 잘하기 위해 국어의 /ㅈ/를/z/로 발음한다.

22. '말'이 ㉠에 해당하는 뜻으로 쓰인 것은?[1.6점] [문제해설]

- ① 제가 먼저 말을 꺼내겠습니다.
- ② 말은 생각을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 ③ 그런데 말이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 ④ 감정이 격해지니까 말도 거칠어지는데요.
- ⑤ 벌써 말이 퍼져서 이 일은 포기해야 하겠어요.

23. ㉡에 대해 '소의 울음'을 예로 들어 설명하려고 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문제해설]

- ① 소의 울음을 나타내는 단어가 언어마다 다르다.
- ② 소의 실제 울음은 '음매'라는 발음과 똑같지 않다.
- ③ 소의 울음은 '음매'라고 발음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 ④ 소의 울음을 '음매, 엄매' 등으로 달리 발음할 수 있다.
- ⑤ 소의 울음을 '음매'라고 하는 것은 한국어 화자가 그렇게 지각하기 때문이다.

24. ㉢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은?[문제해설]

- ① 함께 갑시다. ② 골고루 먹어라.
- ③ 비가 오는구나! ④ 이게 뭔지 알아?
- ⑤ 책은 안방에 있어.

[25~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뒷벽 중앙에 새긴 십일면관음보살은 더할 나위 없는 여성미와 육체미까지 나타내었다. 어디까지나 아름답고 의젓한 얼굴판은 그만 두더라도, 곱고도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드리운 오른팔, 엄지와 장지 사이로 살며시 구슬 줄을 들었는데, 그 어여쁜 손가락이 곱실곱실 움직이는 듯. 병을 치키어 켜 포동포동한 왼쪽 팔뚝! 종교 예술품으로 이렇게 곡선미를, 여성미를 영절스럽게도* 나타낼 수 있으랴? 그나 그뿐인가? 수없이 늘인 구슬 밑에 하늘하늘하는 옷자락은 서양 여자의 야회복을 생각나게 한다. 그 아른아른 옷자락 밑으로 알맞게 볼록한 젖가슴, 좁은 듯하면서도 슬밋한 허리를 대어 둥그스름하게 떠오른 허벅지, 토실토실한 종아리가 뚜렷이 드러났다. 그는 살아 움직인다.! 그의 몸엔 분명히 맥이 뛰고 피가 흐른다. 지금이라도 선뜻 벽을 떠나 지그시 간은 눈을 뜨고 빙그레 웃을 듯. 고급의 예술품을 얼마쯤 더듬어 보았지만. 이 묵묵한 돌부처처럼 나에게 감흥을 주고 범열(法

悅)을 자아낸 것은 드물었다. 나는 마치 일생을 두고 ㉞그리고 그리던 고운 님(보살님이시여! 그릇된 말씨의 모독을 용서하사이다. 보살님이 내 가슴에 붙여 주신 맑은 불길은 이런 모독쯤은 태우고야 말았습니 다.)을 만난 것처럼 그 팔뚝을 만지고, 손을 쓰다듬고, 가슴을 어루만 지며, 어린 듯, 언제까지고 차마 발길을 돌릴 수가 없었다.

-현진건,<불국사 기행>

(나) 소백산 기슭 부석사의 한낮, 스님도 마을 사람도 인기척이 끊어진 마당에는 오색 낙엽이 그림처럼 깔려 초겨울 안개비에 축축히 젖고 있다. 무량수전, 안양문, 조사당, 응향각들이 마치 그림자에 지친 듯 해쓷한 얼굴로 나를 반기고, 호젓하고도 스산스러운 희한한 아름다움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다. 나는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에 기대 서서 사무치는 고마움으로 이 아름다움의 뜻을 몇 번이고 자문자답했다.

무량수전은 고려 중기의 건축이지만, 우리 민족이 보존해 온 목조 건축 중에서는 가장아름답고 오래 된 건물임이 틀림없다. 기둥 높이와 굽기, 사뿐히 고개를 든 지붕 처너의 곡선과 그 기둥이 주는 조화, 간결하면서도 역학적이며 기능에 충실한 주심포의 아름다움, 이것은 꼭 갖출 것만을 갖춘 필요미이며, 문창살 하나 문지방 하나에도 나타나 있는 비례의 상쾌함이 이를 데가 없다. 멀찍이서 바라봐도 가까이서 쓰다듬어 봐도 무량수전은 의젓하고도 너그러운 자태이며 근시안적인 신경질이나 거드름이 없다. 무량수전이 지니고 있는 이러한 지체야말로 석굴암 건축이나 불국사 돌계단의 구조와 함께 우리 건축이 지니는 참 멋, 즉 조상들의 안목과 미덕이 어떠한다는 실증을 보여주는 본보기라 할 수밖에 없다. 무량수전 앞 안양문에 올라 앉아 먼 산을 바라보면 산 뒤에 또 산, 그 뒤에 또 산마루, 눈길이 가는 데까지 그림보다 더 곱게 겹쳐진 능선들이 모두 이 무량수전을 향해 마련된 듯싶다.

이 대자연 속에 이렇게 아늑하고도 눈맛이 시원한 시야를 터줄 줄 아는 한국인, 높지도 알지도 않은 이 자리를 점지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한층 그윽하게 빛내 주고 부처님을 믿음을 더욱 숭엄한 아름다움으로 이끌어 줄 수 있었던 안목의 소유자, 그 한국인, 지금 우리의 머리 속에 빙빙 도는 그 큰 이름은 부석사의 창건주 의상 대사이다.

이 무량수전 앞에서부터 당간 지주가 서 있는 절 밖, 그 넓은 터전을 여러 층 단으로 댄으면서 그 마무리로 쌓아 놓은 긴 석축들이 각기 다른 각도에서 이뤄진 것은 아마도 먼 안산(案山)*이 지니는 겹겹한 능선의 각도와 조화시키기 위해 풍수 사상에서 계산된 계획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 석축들의 짜임새를

바라보고 있으면 신라나 고려 사람들이 지녔던 자연과 건조물의 조화에 대한 생각을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은 순리의 아름다움이라고 이름 짓고 싶다. 크고 작은 자연석을 섞어서 높고 긴 석축을 쌓아 올리는 일은 자칫 잔재주에 기울기 마련이지만, 이 부석사 석축들을 돌아보고 있으면 이끼 낀 크고 작은 돌들의 모습이 모두 그 석축 속에서 편안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희한한 구성을 이루고 있다.

-최순우,<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

*영절스럽다: 아주 그럴 듯하다

*안산: 집터나 밋자리의 맞은편에 있는 산

25. (가)와 (나)의 차이점을 잘못 말한 것은? [2점][문제해설]

- ① (가)는 시선이 하나의 대상으로 초점화된 데 비해, (나)는 여러 대상으로 분산되어 있다.
② (가)는 현재의 시각에서 기술하고 있는 데 비해, (나)는 과거를 회

상하면서 기술하고 있다.

③ (가)는 주관적 감흥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데 비해, (나)는 객관적 지식을 토대로 하고 있다.

④ (가)는 대상과의 거리가 밀착되어 있는 데 비해, (나)는 대상과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⑤ (가)는 대상을 동적(動的) 이미지로 파악하고 있는데 비해, (나)는 대상을 정적(靜的) 이미지로 파악하고 있다.

26. (가)를 '한국미의 순례'라는 영상물로 제작하려고 한다. (가)의 내용에 더 추가된 것은?
[문제해설]

- ① 옥피리를 불며 승천하는 관음보살을 환상적으로 처리해 본다.
② 고풍스러운 음악과 함께 관음상의 전신(前身)을 두루 비추게 한다.
③ 관음보살이 웃음 지으며 움직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표현해 본다.
④ 화자가 관음상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쓰다듬는 모습을 보여 준다.
⑤ 화자가 관음상을 바라보며 자신의 심경을 감동적인 어조로 말하게 한다.

27. 다음은 '석굴암 관음상을 보고'라는 제목으로 창작을 하기 위한 구상들이다. (가)에 나타난 필자의 느낌과 유사한 것은?[문제해설]

- ① 관음상은 종교적 대상이 아닐 수 없어. 엄숙함과 경건함이 잘 드러나도록 그림을 그려려고 해.
②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이 관음보살께 자기의 심정을 하소연하는 내용으로 편지를 쓰려고 해.
③ 관음상을 만든 석공은 위대한 장인임이 분명해. 그의 일대기를 소재로 한 소설을 쓰고 싶어.
④ 관음상은 단순한 돌덩이가 아니야. 차가운 돌에 뜨거운 생명을 불어넣는 내용을 담은 시를 쓰고 싶어.
⑤ 관음상은 선인들의 열이 담겨 있는 고귀한 문화재이잖아. 여러 곳에 있는 관음상을 탐방하는 내용의 기행문을 쓰려고 해.

28. <보기>는 예술품의 창작과 수용 관계를 나타낸 그림이다.(나)의 안의 말들을 ㉠~㉞에 바르게 대응시킨 것은?[문제해설]

㉠

㉞

㉡

- | | | |
|------------|----------|----------|
| ① 안목과 미덕 | 순리의 아름다움 | 사무치는 고마움 |
| ② 안목과 미덕 | 사무치는 고마움 | 순리의 아름다움 |
| ③ 순리의 아름다움 | 안목과 미덕 | 사무치는 고마움 |
| ④ 순리의 아름다움 | 사무치는 고마움 | 안목과 미덕 |
| ⑤ 사무치는 고마움 | 순리의 아름다움 | 안목과 미덕 |

29. (나)에서 필자가 주목한 대상을 그려보았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점][문제해설]

① ②

③ ④

⑤

30. <보기>는 (가)의 ㉠,㉢와 관련한 사진 풀이이다. 설명이 그른 것은? [2점][문제해설]

- ① 그리다1와 그 : 리다2는 서로 다른 낱말이다.
- ② 그 : 리다2의 첫 음절 '그'는 길게 발음한다.
- ③ 그리다1와 그 : 리다2는 모두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이다.
- ④ ㉠는 그 : 리다2의 ④에 해당하며, ㉢는 그리다1에 해당한다.
- ⑤"마음속으로 그 사람의 얼굴을 그려보았다."라고 할 때의 '그려'는 그리다1의 뜻이다.

[31~39]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31. (가)~(라)의 시적 공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문제해설]

32. ㉠,㉢의 공통적인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문제해설]

- ① 시적 화자의 정서를 집약적으로 드러낸다.
- ② 특정 음운을 거듭 사용하여 음악적 효과를 얻는다.
- ③ 시상을 매듭지으며 각 단계의 의미에 긴밀히 대응한다.
- ④ 반복의 효과를 바탕으로 시 전체가 통일감을 갖도록 한다.
- ⑤ 연과 연의 관계를 분명히 하여 시상이 자연스럽게 전개 되도록 한다.

33. <보기>를 참조할 때,(가)와(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문제해설]

<보기>

갑: 차라리 강으로 달려가 물고기 뱃속에 장사 지낼 지언정, 어찌 회고 결백한 몸으로 세속의 티끌과 먼지를 뒤집어쓰겠는가?

을: 강물이 맑으면 내 갯끈을 씻고, 강물이 흐르면 내 발을 씻으리라.

① (가)의 화자가 '을'이라면, 현실을 개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가)의 화자가 '갑'이라면, 현실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나)의 화자가 '을'이라면,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유유자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나)의 화자가 '갑'이라면, 현실에 적응하여 분수를 지키며 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가)와 (나)의 화자가 '갑'이라면, 현실과 이상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4. 시상전개상 ㉠에 들어갈 시구는? [1.6점][문제해설]

35. 발상 및 표현이 ㉢과 가장 가까운 것은?[문제해설]

- 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면, 아랫사람은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것
아닌가요?
- ② 날씨가 추워지면 옷을 더 입는 것처럼, 살기가 어려워질수록 친구를 더 많이 사귀어야
하는 법이란단.
- ③ 땀 흘려 산에 오르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이고, 땀 흘려 일하는 것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라네.
- ④ 제가 이 회사에 지원한 이유는 전공을 살릴 수 있을 뿐더러, 저의 이상도 실현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 ⑤ 문학작품의 가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것을 읽었는가가 아니라, 작품이 얼마나 뛰어난
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36. (다)의 각 단계의 장면들을 그림으로 표현하려 할 때, 시적 화자의 시각과 거리가 먼 것은?[문제해설]

- ① 멀리서 바라본 농촌의 들판을 그리되, 평화롭고 향토적인 분위기가 나도록 한다.
- ② 시골집 방안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그리되, 노년의 서글픔이 느껴지도록 한다.
- ③ 풀썰을 달리는 소년을 그리되, 동심이 꾸밈없이 드러나도록 한다.
- ④ 들판에서 이삭 줍는 여인네들을 그리되, 소박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한다.
- ⑤ 불빛이 새어 나오는 초가집을 그리되,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이 들도록 한다.

37. (라)를 내재적 접근 방법에 따라 감상한 태도로 보기 어려운 것은?[문제해설]

- ① '화원지', '묘지'같은 공간이 지닌 상징성을 찾아본다
- ② '하이얀', '물히인'같은 시어가 주는 느낌을 음미해 본다.
- ③ '마치', '벤치'같은 이국적 소재를 끌어 쓴 이유를 추측해 본다.
- ④ '파-란 역등', '새빨간 노을' 같은 묘사에 담긴 심상을 떠올려 본다.
- ⑤ '가벼운 웃음이 흩어져 있다든지, '푸른 종소리'가 분수처럼 흩어진 다든지 하는 표현의 특징을 분석해 본다.

38. (다)와 (라)의 시적 화자를 동일 인물로 설정하고, 그를 주인공으로 해서 연극을 꾸미고자 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문제해설]

- ① 의식이 현재와 과거를 수시로 넘나들게 한다.
- ② 소극적이고 예민한 심성의 소유자로 성격화한다.
- ③ 외적 현실과 내면 의식의 대립이 잘 드러나게 한다.
- ④ 현실에 찌들어 더 이상 고향을 생각하지 않게 한다.
- ⑤ 낯선 도시 생활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것으로 한다.

39. ㉠~㉣중 시인이 대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가장 이질적인 것은?
[문제해설]

- ① ㉠ ② ㉡ ③ ㉢ ④ ㉣ ⑤ ㉤

[40~44]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루소의 사상은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는 선하고 자유롭고 행복했으나, 사회와 문명이 들어서면서 악해지고 자유를 상실하고 불행해졌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는 『에밀』의 첫머리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세상 만물은 조물주의 손에서 나올 때는 선하지만, 인간의 손에 와서 타락한다. 인간은 어떤 땅에다 다른 땅에서 나는 산물을 재배하려 드는가 하면, 어떤 나무에 다른 나무의 열매를 열리게 하려고 애를 쓴다. 인간은 기후·환경·계절을 뒤섞어 놓기도 한다. 무엇 하나 자연이 만들어 놓은 상태 그대로 두지 않는다.

루소에 의하면,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필요한 만큼의 욕구가 충족되면 그 이상 아무 것도 취하지 않았으며,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지도 않았다. 심지어 타인에게 도움을 주려는 본능적인 심성까지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인지(認知)가 깨어나면서 ㉠인간의 욕망은 필요로 하는 것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이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사유 재산 제도가 형성되고, 그 결과 불평등한 사회가 등장하게 되었다. 즉 이기적 욕망으로 인해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고, 사회는 인간 사이의 대립과 갈등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이러한 인간과 사회의 병폐에 대한 처방을 내리기 위해 쓰여진 것이 『에밀』로서, 그 처방은 한마디로 인간에게 잃어버린 자연을 되찾아 주는 것이다. 즉 인간에게 자연 상태의 원초의 무구(無垢)함을 되돌려 주어, 선하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게 하는 것이다. 루소는 이것이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 교육의 실체는 ㉡가공(架空)의 어린이 '에밀'이 루소가 기획한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이상적인 인간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이 교육은 자연상태의 인간이 본래의 천진무구함을 유지하면서 정신적·육체적으로 스스로를 도야해 가는 과정을 따르는 것을 원리로 삼는다. 그래서 지식은 실제 생활에 필요한 정도만 배우게 하고, 심신의 발달 과정에 따라 어린이가 직접 관찰하거나 자유롭게 능동적인 경험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자유로우면서도 정직과 미덕을 가진 도덕적 인간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자연 상태의 인간을 중시하는 그의 인간관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루소의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은 공허한 외침으로 들리기도 한다. 루소가 말하는 자연으로 돌아가기에는 이미 인류의 역사가 너무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이 본래 무구한 존재라고 본 그의 인간관과 인간 사이의 유대를 도모하고 평등을 실천할 수 있는 인간상을 추구했던 그의 이상은 인간을 탐욕의 노예로 몰고 가는 오늘날에 더욱 빛을 발한다.

40. 윗글에 나타난 루소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문제해설]

- ① 문명의 발전을 인성의 발전과 동일시하였다.
- ② 사유 재산 제도를 부정적인 시각에서 평가했다.

- ③ 무구함의 회복이 인간의 행복과 통한다고 여겼다.
- ④ 사회 병폐에 대한 처방책의 핵심을 교육으로 보았다.
- ⑤ 도덕적 인간 양성이 이상적인 사회구축의 첩경이라고 믿었다.

41. 윗글에서 루소가 말하는 '교육'의 개념과 가장 유사한 것은?[문제해설]

- ① 교육은 지식의 습득을 기본 목표로 한다.
- ②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이다.
- ③ 교육은 자아의 독립과 완전한 개성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 ④ 교육은 특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을 부여하는 것이다.
- ⑤ 교육은 제멋대로 흐르는 개울을 반듯한 수로로 변하게 하는 것이다.

42. 문맥상 ㉠의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1.6점][문제해설]

- ① 식수를 구하려고 우물을 팠다.
- ② 추위를 막기 위해 의복을 만들어 입었다.
- ③ 먹고 남은 곡식으로 해마다 농토를 사들였다.
- ④ 추수가 끝나면 신께 감사하는 의식을 치렀다.
- ⑤ 외부의 침입에 대처하기 위해 공동 생활을 하였다.

43. ㉡'가공'의 사전적 의미는?[문제해설]

- ① 일부러 꾸며 놓음
- ② 다듬어서 새롭게 만듦
- ③ 이루어질 가망성이 없음
- ④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 놓음
- ⑤ 이미 있는 것에 새 것을 더함

44. ㉢에 제시된 교육 방법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문제해설]

- ① 아는 것이 병이라는 말처럼, 쓸데없는 것을 너무 많이 알게 되면 해롭지 않을까?
- ② 매를 아끼면 아이를 버린다는 말도 있듯이, 아이들을 제멋대로 내버려두면 버릇이 나빠지지 않겠어?
- ③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도 있듯이, 어려서 이루어진 성격은 평생을 좌우하지 않을까?
- ④ 서당 개 삼 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는 말처럼, 아이들 에게는 무엇보다 교육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
- ⑤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아는 아이도 있는데, 뛰어난 아이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을 시켜야 하지 않을까?

[45~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는 역사상의 모든 인간 사회들이 ㉠물질적 풍요라는 가치를 추구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식은 공동체적 유대와 평화로움을 중시하는 칼라하리 사막의 수렵 채집민인 쿵 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은 최소한의 식욕을 해결하면 각종 놀이와 의례 행위를 통해 정신적인 즐거움과 화목한 사회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한다. 이러한 쿵 족의 태도는 사바나 생태계에서 경험적으로 체득한 지혜에서 나온 것이다. 즉 이들은 건기와 우기의 생태적 변화 과정이나 먹이감의 이동 경로, 식용 식물에 대한 지식 등에 기초하여 노동을 배분한

다. 또한 자신이 속한 씨족 집단의 구성원들과 생산물·사냥도구를 공유함으로써 궁핍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응 체계를 발전시켰다. 인간은 생존하기 위하여 우선 먹어야 하지만, 얼마나 먹을 것인가 하는 것은 문화에 따라 다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무분별한 ㉠부의 추구가 한 문화를 완전히 파괴시킨 경우를 아프리카의 유목민인 새홀 족에서 발견할 수 있다. ㉡1920년대부터 인구 증가로 고통받던 이 부족은 1960년대 중반 평균 강수량보다 많은 비가 내려 목초가 풍부해지자 경쟁적으로 가축의 수를 크게 늘려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날씨가 건조해지자 그들은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더 많은 가축들을 방목하는 것으로 대응하였다. 그 결과 그들의 삶의 터전인 목초지는 서서히 사막으로 변하여 생존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전통적인 문화적 적응 방식에 담겨 있는 생태 체계와의 조화라는 원리가 ㉢개인적인 욕구 추구로 대체 됨으로써 나타난 결과라고 하겠다.

부의 축적이 ㉣물질적인 안락함과 편리함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를 많은 인류학자들이 보고하고 있다. 북아메리카의 콰키틀 인디언은 20세기 초까지 ㉤낭비적 소비가 이루어지는 포틀라치라는 축제를 행하고 있었다. 이들은 더 높은 위신과 권위를 얻기 위해 경쟁적으로 손님을 초대하여 많은 선물을 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귀중한 재화를 파괴하며, 심지어는 자신의 집을 불태우기도 하였다. 현대인의 눈에 낭비적이고 파괴적으로 보이는 이 축제는 자연 자원이 풍부하고 사회적 신분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조건을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 또한 정치적 위신과 권위를 얻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문화를 통해 부의 분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부수적 효과도 얻을 수 있었다. 뉴기니아 마링족의 대규모 돼지 도살 축제도 이와 유사한 사례로 들 수 있다. 마링족은 사육하는 돼지의 수가 곧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정치적 권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평소에는 정성껏 돼지를 돌보고 돼지고기를 식탁에 올리지 않는다. 이러한 금기가 깨어지는 것이 카이코라 불리는 축제 기간이다. 이 축제는 돼지의 수가 늘어나 먹을 것이 부족해지고 노동력이 달려서 돼지를 돌보기 어려워지는 시기에 열린다. 축제가 열리면 평소에 먹기 어려운 돼지고기를 싣껏 먹고 동맹 부족의 사람들을 불러 돼지를 선물한다. 이를 통해 전쟁에서의 동맹 세력을 확보하고, 노동력에 여유를 얻으며 생태계의 균형을 복원한다.

이상의 사례들은 물질적 풍요의 추구가 한 문화의 중심적 가치가 아닐 수 있고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처럼 문화의 다양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각 문화의 제도나 관습들이 그 나름의 역사적·경제적·생태적 조건 등을 기초로 발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의 기준으로 문화의 우열을 정한다든지, 어떤 문화 요소의 좋고 나쁨을 논하기는 어렵다.

45. 윗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문제해설]

- ① 정신 문화의 중요성 강조
- ② 다양한 문화와 그 가치의 인정
- ③ 우리 문화의 고유성에 대한 재인식
- ④ 물질적 풍요의 개념에 대한 재해석
- ⑤ 서구적 가치의 지속적 추구에 대한 재평가

46. 윗글의 논지 전개방식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문제해설]

- ① 여러 개념을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분석하고 있다.
- ② 역사적 관점에서 대상의 변화 과정을 추적하고 있다.
- ③ 여러 사례를 들어 주장하는 바를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다.
- ④ 여러 이론적 입장을 대비시켜 주장하는 바를 개진하고 있다.
- ⑤ 주장하는 바를 유사한 경험을 들어 순차적으로 밝히고 있다.

47. ㉠~㉣중 의미하는 바가 다른 것은?[문제해설]

- ① ㉠ ② ㉡ ③ ㉢ ④ ㉣ ⑤ ㉤

48. ㉡의 사례에 어울리는 속담은?[문제해설]

- ① 우선 먹기에는 곱감이 달다.
- ②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 ③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한다.
- ④ 먼 사촌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
- 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49. 윗글의 논지와 거리가 먼 진술은? [2점][문제해설]

- ① 대중 가요도 '고급 문화'가 될 수 있어.
- ② 사람에 따라서는 채식만 하는 경우도 있어.
- ③ 중, 고등 학생들이 이성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해.
- ④ 사주팔자를 보는 것도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야.
- ⑤ 청소년들이 컴퓨터 게임을 즐기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어.

[50~5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각설 이 때 한림 [유연수] 이 물가를 따라 점점 가며 탄식하되, “내 당초에 혼미하고 용렬(庸劣)하여 요사한 말을 귀담아 들어 현인(賢人)을 방출하여, 위로 조상 제사를 받들지 못하고 아래로 처자의 성명을 보전치 못하고 또 신세 만 리에 떠돌고 문호(門戶) 하루 아침에 몰락하니, 이 또한 만고의 우부(愚夫)요 천지간 죄인이라. 부부의 정이 사씨에게 멀어지고 부장의 정이 인아(麟兒)에게 단절하니 살아 무엇하리오.”

무수히 탄식하며 악주(岳州)에 이르러 강가에서 방황하며 어부를 만나면 문득 사씨의 소식을 탐문하되 종족이 막연하고 소식이 묘연하니 한림이 더욱 원통하고 울적함을 이기지 못하여 강촌에 가 곳곳에 묻더니 촌사람이 말하되,

“그 때 사씨 회사정(懷沙亭)으로 향한다 하더니다.”

오래 듣다가 황망히 행하여 회사정 아래 이르니, 고목의 잎이 누렇게 떨어진 가운데 인적이 끊어지고 여러 짐승들이 좌우로 울되, 다만 눈앞에 보이는 바는 동정호(洞庭湖) 구의산(九疑山)과 소상(瀟湘)의 저물 무렵의 구름이더라.

한림이 방황하며 탄식하더니 홀연 벽 위의 글을 보니 크게 썼으되, ‘모년 모월 모일에 사씨 정옥은 물에 빠져 죽노라.’ 하였거늘 한림이 크게줄라 대성통곡 왈,

“무죄한 부인을 이 지경에 이르게 하였으니, 슬프다, 나의 용렬함이여. 비록 후회한들 어찌 부인을 위로하리오. 내 이미 황천에 가지 못하고 물에 몸을 던지지 못하니 이 죄를 어찌 면하리오. 슬프고 슬프다. 부인이 무슨 죄로 萬頃蒼波에 죽었느냐?”

굽어보며 방성대곡(放聲大哭)하니 물결이 흐느끼고 천지가 참담하더라. 이 때 해는 서산에 지고 안개는 동정호에 일어나니 한림의 무한한 비회(悲懷)와 부인의 구천(九泉)에 사무치는 애원(哀怨)이 전후(前後)가 똑같더라.

(나) 한림이 이에 원혼을 위로하고자 하여 강촌에 내려가 술상을 갖추

고 등불 밑에 앉아 제문을 지으며 슬픈 감회 가슴에 가득하여 피눈물 흘러 지필(紙筆)을 적시니 밤늦도록 지으나 한 자도 이루지 못하여 앉아 탄식만 하더니, 문득 합성 소리 진동하거늘 한림이 대경하여 창을 열고 보니, 한 떼 도적이 창검을 가지고 들어오며 크게 소리하여 왈,

“유연수는 가지 말라.”

하거늘 한림이 크게 놀라 북쪽 창을 열고 나와 급히 도망하여 동서를 분별치 못하고 달아나니, 황급한 말을 어찌 다 기록하리오. 겨우 백여 걸음 가다가 뒤를 보니 불빛이 점점 가까워 오고 합성이 더욱 진동하니 한림이 당황하여 초목 사이로 살기를 바라 달리더니 의관이 다 부서지더라. 급히 가매 수풀이 다하고 큰 강이 닥치니 몸에 날개 없으니 어찌 능히 달아나리오. 적당(賊黨)이 외쳐 왈,

“유연수 비록 살고자 하나, 팔랑개비라 하늘로 오르며 두더지라 땅으로 들랴?”

하며 급히 쫓아오거늘 한림이 하늘을 보고 탄식 왈,

“내 어찌 이 곳에서 죽을 줄 알았으리오. 차라리 강에 던져 부인의 혼백을 의지하리라.”

하고 강을 향하고 달리더니, 홀연 바람결에 사람 소리 들리거늘 한림이 생각하되 이곳에 혹 어선인가 하고 황망히 달리더니 달빛은 희미하고 적적한데 멀리 바라보니 조각배 하나 떠오르고 푸른 옷을 입은 여동(女童)이 뱃머리에 의지하여 손으로 물결을 희롱하며 낭랑한 소리로 시를 읊고 있거늘,

……중략……

한림이 급히 불러 왈,

“여동은 인명을 구하라.”

하거늘 이 때 묘희와 부인이 배의 창문을 반쯤 열고 여동을 명하여 가로되,

“급히 배를 대어 저 상공을 구하라.”

하니 여동이 급히 배를 저어 언덕에 대니 한림이 급히 오르며 왈,

“뒤에 강도들이 급히 따라오니 바빠 행하여 수중의 어육(魚肉)을 면하게 하라.”

말을 마치지 못하여 도적 등이 이미 강가에 이르러 대성 왈,

“여동은 바빠 배를 대라. 그 배 안의 행인이 살인한 도적이매 계림 태수께서 우리를 보내어 급히 잡아 오라 하여 왔으니 만일 놓치면 너희 등이 그 도적과 같이 죽을 죄를 당하리라. 바빠 배를 대라.”

하니 한림이 비로소 동청(董靑)의 적당인 줄 알고 더욱 두려워하여 여동에게 왈,

“나는 경성의 유한림이요. 저 놈들은 다 도적이니 급히 배를 건너 화를 면하게 하라.”

하니 여동이 적당에게 이르되,

“너희 무리 지어 죄 없는 군자를 해코지 하니 우리 어찌 군자를 구치 아니 하리오.”

모든 도적이 왈,

“감히 관청의 명령을 어기니 장차 어디로 가리오.”

여동이 크게 웃고 배의 창문을 의지하고 돛대를 쳐 노래하며 돛을 달아 배를 저어가니 적당이 하릴없어 돌아가더라.

— 김만중, <사씨남정기>

* 악주, 동정호, 구의산, 소상 : 중국의 지명

50.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문제해설]

- ① (가): 한림의 정서와 공간적 배경이 상응하고 있다.
- ② (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한림의 회한이 깊어지고 있다
- ③ (나): 한림의 내면 갈등이 대화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 ④ (나): 급박한 상황 전개가 시간적 배경과 상응하고 있다.
- ⑤ (나): 한림의 비통한 심리에 극도의 위기감이 부가 되고 있다.

51. 윗글을 읽고 사건 전개의 필연성과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의문은?[문제해설]

- ① 유한림은 왜 회사정에 갔을까?
- ② 유한림은 왜 물에 빠져 죽을 생각을 했을까?
- ③ 도적의 무리는 왜 퇴로도 차단하지 않고 달려들었을까?
- ④ 묘희와 부인의 배가 어떻게 해서 그 순간에 나타났을까?
- ⑤ 유한림은 촌사람들에게 사씨에 대해 어떻게 물어 보았을까?

52. (가)의 밑줄 친 부분에 담긴 사씨의 심정과 가장 가까운 것은?[문제해설]

- ① 까마귀 싸우는 골에 백로야 가지마라
성넨 까마귀 흰 빛을 시샘할세라
청강에 기껏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 ② 묻노라 먹라수야 굴원이 어찌 죽다터니
참소에 더럽힌 몸 죽어 묻힐 땅이 없어
청파에 골육을 씻어 고기 뱃속에 가추니라
- ③ 산은 옛 산이로되 물은 옛 물이 아니로다
밤낮으로 흐르거든 옛 물이 있을소냐
사람도 물과 같도다 가고 아니 오는도다
- ④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 님 여의웁고
내 마음 둘 데 없어 냇가에 앉았으니
저 물도 내 안 같아서 울어 밤길 예눗다
- ⑤ 욕심 난다 하고 몸쓸 일을 하지 말라
나는 잊어도 남이 내 모습 보느니라
한 번을 악명을 얻으면 어느 물로 씻으리

53. (나)에서 유한림이 못 쓴 '제문'을 독자가 대신 쓰 려고 한다. <보기>처럼 초안을 작성하였을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문제해설]

<보기> 사월 보름날, 연수는 부인에게 조출한 음식을 차려 놓고 고하오. 부인이 죽었다니 그것이 정말이오? 아직도 그것이 믿어지지 않

소. 돌이켜 보니 우리 처음 혼인 했을 때가 제일 화평했던 때가 아니었던가 싶소. 그 좋았던 시절도 이제는 추억이 되고 말았구료.

내 잠시 혼미하고 용렬하여 요망한 말을 듣고 부인을 쫓아냈으니 차마 볼 면목이 없소.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그러나 이제 후회한들 어찌겠소. 부인이 이제 세상에 없으니 내 무슨 낮으로 살겠소. 부인을 따라 죽고 싶은 심정ियो. 저승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명복을 비오.

- ① 부인의 현숙한 덕행을 칭송함
- ② 부인이 쫓겨난 후의 행적을 기술함
- ③ 부인을 모함한 자에 대한 분노를 표출함
- ④ 부인과 헤어진 후의 경제 사정을 회고함
- ⑤ 부인을 죽도록 한 불합리한 제도를 비판함

54. 위 소설을 '우리 고전 다시 읽기 운동'의 대상 작품으로 추천하고자 한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추천의 이유로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은? [2점][문제해설]

- ①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전통적인 가치 인식과 함께 속도감과 박진감을 한 축으로 삼는
현대적 서사성을 두루 갖추고 있다.
- ② 한국 문학의 세계화를 지향해야 하는 시점에서, 중국을 공간적 배경으로 삼은 국제적
감각과 권선징악이라는 보편적 주제가 돋보인다.
- ③ 당대의 풍속을 사실적으로 반영하며, 유교적 가치관을 실감 있게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온고이지신 (溫故而知新)'의 대상으로 적절하다.
- ④ 독백을 통한 인물의 내면 묘사가 탁월하고, 집단의 고뇌와 갈등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고전 소설의 특징을 잘 보여 주고 있다.
- ⑤ 쫓고 쫓기는 행위, 위기 일발의 상황, 극적인 조력자의 출현 등 활극을 연상케 하는 장면
들은 요즘의 대중 소설과 견줄 만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55~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흘 전 감자 쪄간만 하더라도, 나는 저에게 조금도 잘못된 것은 없다. 계집애가 나물을 캐러 가면 갓지 남 ㉠울타리 엮는데 ㉡쟁이질을 하는 것은 다 뭐냐. 그것도 발소리를 죽여 가지고 등 뒤로 살며시 와서 "애! 너 혼자만 일하니?" 하고 긴치 않은 수작을 하는 것이었다. 어제까지도 저와 나는 이야기도 잘 않고 서로 만나도 본척만척하고 이렇게 점잖게 지내던 터이런만, 오늘로 갑작스레 대견해졌음은 웬 일인가. 향차 망아지만한 계집애가 남 일하는 놈 보구…….

"그럼 혼자 하지 떼루 하디?"

내가 이렇게 내배알는 소리를 하니까

"너, 일하기 좋니?"

또는

"한여름이나 되거든 하지 벌써 울타리를 하니?"

잔소리를 두루 늘어놓다가 남이 들을까 봐 손으로 입을 틀어 막고는 그 속에서 깔깔대인다. 별로 우스울 것도 없는데, 날씨가 풀리더니 이놈의 계집애가 미쳤나 하고 의심하였다. 게다가 조금 뒤에는 제 집계를 할끔할끔 돌아보더니 행주치마의 속으로 껴던 바른손을 뽑아서 나

의 턱밑으로 불쑥 내미는 것이다. 언제 구웠는지 아직도 더운 김이 핵 끼치는 굵은 감자 세 개가 손에 뿌듯이 쥐였다.

"느 집엔 이거 없지?"

하고 생색 있는 큰소리를 하고는, 제가 준 것을 남이 알면 큰일 날 테니 여기서 얼른 먹어 버리란다.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너, 봄감자가 맛있단다."

"난 감자 안 먹은다. 니나 먹어라."

㉢나는 고개도 돌리려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 너머로 쑥 밀어 버렸다. 그랬더니 그래도 가는 기색이 없고, 뿐만 아니라 썩근썩근하고 심상치 않게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진다. 이건 또 뭐야 싶어서 그 때에야 비로소 돌아보니 나는 참으로 놀랐다. 우리가 이 동리에 들어온 것은 근 삼 년째 되어 오지만, 여지껏 가무잡잡한 점순이의 얼굴이 이렇게까지 홍당무처럼 새빨개진 법이 없었다. 게다가 눈에 독을 올리고 한참 나를 요렇게 쏘아 보더니 나중에는 눈물까지 어리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바구니를 다시 집어들더니 이를 꼭 악 물고는 얹어질 듯 자빠질 듯 눈독으로 힝 하게 달아 나는 것이다. 어찌다 동리 어른이 "너, 얼른 시집을 가야지?" 하고 웃으면 "염려 마세유. 갈 때 되면 어련히 갈라구……." 이렇게 천연덕스레 받는 점순이었다. 본시 부끄러움을 타는 계집애도 아니거니와 또한 분하다고 눈에 눈물을 보일 열병이도 아니다. 분하면 차라리 나의 등어리를 바구니로 한번 모지게 후려때리고 달아날지언정.

그런데 고약한 그 꼴을 하고 가더니 그 뒤로는 나를 보면 잡아먹으려고 기를 북북 쓰는 것이다.

설혹 주는 감자를 안 받아먹은 것이 실례라하면 주면 그냥 주었지 "느 집에 이거 없지?" 는 다 뭐냐. 그렇잖아도 저희는 마름이고 우리는 그 손에서 배재를 얻어 땅을 부치므로 일상 굶실거린다.

(나)우리가 이 마을에 처음 들어와 집이 없어서 곤란으로 지낼 제, 집터를 빌리고 그 위에 집을 또 짓도록 마련해 준 것도 점순네의 호의였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농사 때 양식이 딸리면 점순네한테 가서 부지런히 꾸어다 먹으면서, 인품 그런 집은 다시 없으리라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곤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열일곱씩이나 된 것들이 수군수군하고 붙어 다니면 동리의 소문이 사납다고 주의를 시켜 준 것도 또 어머니였다. 왜냐하면, 내가 점순이하고 일을 저질렀다가는 점순네가 노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땅도 떨어지고 집도 내 쫓기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이었다.

그런데 이놈의 계집애가 까닭 없이 기를 북북 쓰면 나를 말려 죽이려고 드는 것이다.

(다) 눈물을 흘리고 간 그 담날 저녁 나절이었다. 나무를 한짐 잔뜩 지고 산을 내려오려니까 어디서 닭이 죽는 소리를 친다. 이거 뉘 집에서 닭을 잡나하고 점순네 울 뒤로 돌아오다가 나는 고만 두 눈이 뚱그래졌다. 점순이가 저희 집 봉당에 홀로 걸터앉았는데, 아 이게 치마앞에다 우리 씨암탉을 꼭 붙들어 놓고는 "이놈의 닭! 죽어라. 죽어라." 요렇게 암팡스레 꽤 주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대가리나 치면 모른다마는 아주 알도 못 낳으라고 그 불기썩계를 주먹으로 콕콕 쥐어박는 것이다. 나는 눈에 쌍심지가 오르고 사지가 부르르 떨렸으나, 사방을 한번 휘 돌아보고야 그제서 점순이 집에 아무도 없음을 알았다. 잡은 참 지게막대기를 들어 울타리의 중턱을 후려치며 "이놈의 계집애! 남의 닭 알 못 낳으라고 그러니?" 하고 소리를 뽕 질렀다. 그대로 의젓이 앉아서 제 닭 가지고 하듯이 또 죽어라, 죽어라 하고 꽤는 것이다.

이걸 보면 내가 산에서 내려올 때를 겨냥해 가지고 미리부터 닭을 잡아 가지고 있다가 너 보란 듯이 내 앞에 쫓아내고 있음이 확실하다. 그러나 나는 그렇다고 남의 집에 뛰어 들어가 계집애하고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형편이 썩 불리함을 알았다. 그래 닭이 맛을 적마다 지게막대기로 ㉞울타리를 후려칠 수밖에 별 도리가 없다. 왜냐하면, 울타리를 치면 칠수록 울섰이 물러 앉으며 뼈대만 남기 때문이다. 허나, 아무리 생각하여도 나만 밀지는 노릇이다.

- 김유정. <동백꽃>

55. ㉞, ㉞의 '울타리'에 대한 해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문제해설]

- ① ㉞는 화자와 점순네의 심리적 거리감을 상징한다.
- ② ㉞는 화자의 생활 공간이 고립되어 있음을 말한다.
- ③ ㉞와 ㉞의 역할과 의미는 동일하다.
- ④ ㉞와 감자는 동일한 감정을 매개하고 있다.
- ⑤ ㉞는 화자의 행동을 제약하는 심리적 금기वाद 같다.

56. ㉞'쌔이질을 하는 것'과 가장 유사한 것은?[문제해설]

- ① 토라지는 것
- ② 이죽거리는 것
- ③ 역성을 드는 것
- ④ 귀찮게 구는 것
- ⑤ 거들먹거리는 것

57. '나(화자)'가 점순의 마음을 안다고 가정할 때, ㉞ 바로 뒤에 들어갈 수 있는 '나'의 생각으로 어울리지 않는 것은?[문제해설]

- ① 내가 무관심한 척하니까 곱같이 미련하다고 생각하겠지.
- ② 내가 전혀 못 알아듣는 척하니까 벽창호라고 생각하겠지.
- ③ 내가 자기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목석 같다고 생각하겠지.
- ④ 내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니까 너구리처럼 의뭉스럽다고 생각하겠지.
- ⑤ 내가 자꾸 거절하니까 겨울 다람쥐처럼 모아둔 게 많다고 생각하겠지.

58. (가)에서 유추할 수 있는 '점순'의 심정과 가장 유사한 것은?[문제해설]

- ① 잎이 푸르려 가시던 님이 백설이 훑날려도 아니 오 시네
- ② 아주까리 동백아 피지를 마라 산골의 큰애기 봄바람 난다
- ③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 선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 ④ 산천의 초목은 달이 달달 변해도 우리들 먹은 마음 변치를 말자
- ⑤ 춘산에 지는 꽃이 지고 싶어 지느냐 사세가 부득하 여 지는 꽃이 로구나

59. (나)의 를 <보기>로 바꾸었을 때 독자가 얻을 수 있는 효과로 적절한 것은?

[2점][문제해설]
<보기>

그의 부모가 이 마을에 처음 들어 왔을 때는 아무 거처도 없는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다. 그때 그들을 구해 준 것은 바로 점순네였다. 점순

네의 도움으로 그들은 집터를 마련할 수 있었고, 또 양식이 떨어지면 곧바로 빌려다 먹을수 있었다. 그 은혜에 감복하여 그의 부모는 늘 고마워 했고 인품으로는 그런 집이 없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래서 어머니는 점순네의 고마움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쓸데없는 행동을 삼가라고 주의를 주었던 것이다. 더구나 나이가 열일곱이나 되는 그가 동갑인 점순과 어울려 다닌다면 동네에 나쁜 소문이 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노릇이고, 또 자칫 마름집을 노하게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무례한 행동으로 소작지가 떨어지고 집에서도 쫓겨날지 모른다고 생각한 것이다.

- ① 극적 긴장감을 뚜렷이 느낄 수 있다.
- ② 인물의 육성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 ③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가 더 가까워진다.
- ④ 인물의 내면 심리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
- ⑤ 인물이 처한 상황을 좀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60. 윗글을 바탕으로 '나(화자)'가 50년 후에 자서전을 쓴다고 할 때,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문제해설]

- ① 점순이가 봉당에 걸터앉아 우리 집 씨암탉을 쥐어박던 일을 생각하면 내 입가에는 웃음이 번지곤 한다.
- ② 농촌 생활을 소재로 한 드라마를 볼 때마다 새빨개진 얼굴로 논둑을 달려가던 점순이의 모습이 떠오르곤 한다.
- ③ 소작인의 아들로써 감정조차 마음대로 드러낼 수 없었던 힘든 때였으나 되돌아보면 그래도 순박했던 시절로 기억되곤 한다.
- ④ 요즘 젊은이들의 대담한 감정 표현을 볼 때 점순이가 그 때 좀 더 적극적이었더라면 내가 그토록 속맥처럼 행동하지는 않았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 ⑤ 마름집의 인품을 늘 칭찬하셨지만 그래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하셨던 어머니의 근심 어린 얼굴이 지금도 아련하게 머리 속을 맴돌곤 한다.

[61~6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학'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서양의 수학을 떠올린다. 그렇다면 동양에는 수학적인 사고 방식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일까? 이러한 의문은 우리 선조들이 수학적인 문제 상황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였는지 확인함으로써 풀릴 수 있을 것이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인 황윤석의 『이수신편(理葢新編)』에 있는 '난법가(難法歌)'의 문제 중 하나를 보자. "㉞만두 백 개에 ㉞스님이 백명인데, ㉞큰 스님'에게 세 개씩 나누어 주고 ㉞작은 스님'은 세 사람당 한 개씩 나누어 준다면, ㉞큰 스님은 몇 명이고 작은 스님은 몇 명일까?"

요즈음의 중·고등 학생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아마도 많은 학생들은 연립방정식을 세워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즉, 큰 스님의 수를 x , 작은 스님의 수를 y 로, 이므로 이를 풀어 답을 구할 것이다. 이러한 해법은 서양에서 들어온 것으로, 서양에서는 17세기 경부터 쓰여 온 방법이다.

그런데 난법가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풀이한다. 만두가 100개, 스님이 100명이니까. 큰 스님 1명이 먹는 3개와 작은 스님 3명이 함께 먹는 1개를 묶은 4개를 기본 단위로 삼는다. 이것은 만두 4개에 스님 4명이 대응한다는 데서 이루어진 발상이다. 그리고 만두 100개를 기본 단위인 4로 나누면 25가 나온다. 이 25는 3개씩 먹는 큰 스님의 수이

면서 동시에 작은 스님들이 먹는 만두의 개수이다. 따라서 큰 스님의 수가 25이므로 작은 스님의 수는 75가 된다.

창의적인 문제 해결의 예로 많이 인용되는 '계토산(鷄兎算)'문제도 『이수신편』에 소개되어 있다. "닭과 토끼가 모두 100마리인데, 다리를 세어보니 272개 었다. 닭과 토끼는 각각 몇 마리인가?" 이 문제는 이율분신(二率分身)이라는 방법으로 풀고 있다. 이율분신이란 닭과 토끼가 모두 다리의 절반을 들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닭은 다리가 하나, 토끼는 다리가 둘이 되고 그 수는 모두 136이 된다. 여기서 다리 수와 총 마리 수의 차이, 곧 36은 토끼의 마리 수가 된다. 왜냐하면 이율분신에 의해 닭은 다리 수와 마리 수가 같지만, 토끼는 다리 수가 마리 수보다 하나씩 많기 때문이다. 기발한 착상이다. 이율분신 역시 연립방정식을 세워 푸는 과정과 비교할 때 그 착상의 실체를 확인 할 수 있다. 즉 ' $x + y = 100$ ', ' $2x + 4y = 272$ ' 에서 둘째 식의 양변을 2로 나누면 ' $x + 2y = 136$ ' 이 되는 것과 동일한 조작이다.

연립방정식의 해법에 익숙한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㉑이러한 풀이는 상당히 낯설면서도 기발한 착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풀이에 대해, 직관에만 의존하였을 뿐 수식에 입각한 논리적인 추론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들 풀이 과정에도 분명히 가설과 논리적인 추론이 작용한다. 직관적으로 만두 네 개와 스님 네 명을 대응시킨 것과 이율분신의 발상을 한 것은 가설에 해당하며,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설명을 해 가는 것은 바로 논리적 추론 그 자체이다.

이러한 사례는 서양과는 다른, 우리 식의 수학적 사고가 분명히 존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그것이 현재까지 계승되지 못하였을 뿐이다.

61. 윗글에 나타나나 우리 선조들의 수학적 사고의 특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문제해설]

- ① 현실적 이해 관계의 중시
- ② 보편 타당한 방법론의 설정
- ③ 인간 중심적 세계관의 추구
- ④ 격식을 중시하는 가치관의 반영
- ⑤ 구체적인 문제 상황 설정과 해결

62. 난법가의 풀이와 연립방정식에 의한 풀이의 공통점은?[문제해설]

- ① 추론 과정이 있다.
- ② 적용 사례가 제한되어 있다.
- ③ 생활 경험에 기초하여 푼다.
- ④ 개념을 기호로 바꾸어서 푼다.
- ⑤ 실험과 관찰의 방법을 이용한다.

63. ㉑가 함축하는 의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6점][문제해설]

- ① ㉑ ② ㉒ ③ ㉓ ④ ㉔ ⑤ ㉕

64. ㉖와 같은 판단의 근거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문제해설]

- ① 서양식의 수학적 사고가 보편화되어 있어서
- ② 알려지지 않은 풀이 방법을 제시하기 때문에
- ③ 연립방정식에 의한 풀이보다 더 논리적이어서
- ④ 예상치 않은 방향에서 풀이의 실마리를 찾기 때문에
- ⑤ 수와 식을 사용하지 않고도 논리적으로 문제를 풀어 서

65. 윗글의 논지를 바탕으로 학술 발표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초청장에 들어갈 발표회의 주제로 적절한 것은? [2점][문제해설]

- ① 서양 수학의 동양적 해석
- ② 정보화 시대의 수학적 사고
- ③ 수학적 사고의 대중화 방안
- ④ 전통 수학과 서양 수학의 원류
- ⑤ 전통 수학의 재평가와 계승 방안

* 확인 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 했는지 확인 하시오.

○ 문제지는 답안지와 함께 제출합니다. 답안지의 표기가 끝나면 답안지는 오른쪽, 문제지는 왼쪽에 놓으시오.

정답 및 해설

2000학년도 수능 언어 영역 해설

<듣기>

1. 이 우화의 핵심은 득이 되고 좋은 일에는 '나'라는 개인을 앞세우고, 어려울 때는 '우리'라는 전체를 내세우는 '이기주의'를 경계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러한 우화는 개인과 집단의 삶의 조화 문제, 공동체의 의식과 관련된 문제, 이기적인 사람에게 충고하는 글, 정책 시행과 관련하여 집단 이기주의적 세태에 대한 경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우화에 등장하는 두 친구 중 어느 친구도 성실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남이 성실한 것을 타하는 세태를 경고하는 사실'에는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답④

2. 남성 통화자가 사용한 말에서 어떤 부분이 어법에 어긋나는지를 찾아야 한다. 남성 통화자는 홍길동 씨가 회의 중이라는 사실을 알려 주면서 '회의가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회의'는 존칭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어법에 맞지 않는다. 이와 동일한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은 "철수야, 선생님께서 교무실에 오시래."이다. 이 또한 선생님을 높여야 함에도 행동의 주체인 철수를 높임으로써 어법에 맞지 않는 경우이다. 이를 바르게 고치면 "철수야, 선생님께서 교무실에 오라고 하셔."가 된다. ①은 가르쳐→가르켜, ③은 '역전 앞의 중복된 표현, ④는 '외식 먹으러'의 중복된 표현, ⑤는 '너네 집'을 '네 집' 혹은 '너의 집'으로, '너가'를 '네가'로 고쳐야 한다. 답②

3. 이 대화에서 남자의 발언의 요지는 디지털 문화가 주도하는 새로운 세기에는 기계가 주도하는 영화보다는 사고력을 유지시켜 주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소설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반면에 여자는 영화를 통해서도 사람들은 인간의 숨결을 느낄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영화의 독자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남자 발표자의 발언에 이어 여자 질문자가 제기할 수 있는 반론은 남성이 소설과 영화를 단순하게 비교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이 적절하다. 답②

4. 취재 기자는 암컷 모양을 하고 나타난 장수하늘소의 출현과 관련하여 환경 단체 관계자와 수목원 관계자의 의견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기자는 다시 한번 장수하늘소가 다시 나타났다는 사실과 수컷의 암컷화를 다시 한번 제기함으로써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면서 시청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답③

5. '홍보가'를 통해 설명을 들은 판소리의 구성 요소를 실제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들려 준 판소리 '홍보가'는 앞부분은 아니리, 뒷부분은 중중몰이의 창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추임새, 북 장단은 중간 중간에 나온다. 답⑤

6. 강사는 대중 가요와는 달리 판소리를 낯설게 느끼는 이유는 자주 접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주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판소리를 자주 듣겠다는 ②의 태도가 강사의 취지에 맞는다고 할 수 있다. 답②

<쓰기>

7. 그림의 내용은 물에 빠진 사람이 멀리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구원을 요청하러 갔더니 해안 공장에서 배출된 환경 오염 물질 때문에 놀라나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는 문구가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답⑤

8. ㉠은 우리 나라가 지리적으로 환태평양 시대의 중심 국가가 될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한반도 모양을 '호랑이 모양을 연상시키는 것으로 그릴 것인가, 토끼 모양으로 그릴 것인가'라는 것은 ㉠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답②

9. 앞에서 유행의 원인과 폐해를 지적하고 마지막에서 대응 태도를 제시하는 것이 전체적인 흐름이다. 따라서 ㉡에 '주체성 확립'을 '원만한 인간 관계 형성'으로 고친 것은 잘못된 수정이다. 이는 '주체적인 소비 생활' 정도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답⑤

10. 교장 선생님께 풍물반을 만들어 달라고 할 때는 풍물반을 만들면 좋은 점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②는 협동심 함양, ③은 전통 문화의 계승, ④는 학교 행사에서의 역할, ⑤는 학생들의 관심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은 교장 선생님이 여행을 좋아하신다는 것을 들고 있는데 이는 풍물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답①

11. ㉢에 이어지는 내용은 앞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므로, '그러면'은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 접속 부사이다. 이는 '물론'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답④

12. 맞춤법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은 '어쨌든'으로 써야 맞다. '어찌하였든', 혹은 '어찌 되었든'에서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이 줄어든 형태이므로 '-쨌-'은 '-쨌-'으로 써야 한다. 답①

<예술>

13. 세종은 우리의 음악을 소중히 여기면서 외래음악의 좋은 점 또한 수용하려 하였다. 박연에게 아악을 정리하게 한 것도 이러한 의도에서였다. 이는 다섯 번째 문단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는데, '세종이 박연 등에게 조화에 사용할 아악을 정리하라고 명했다'고 했으므로, ?는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모두 본문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이다. 답②

14. ㉠의 주장은 '중국과 우리 나라의 음악이 다르니, 우리 나라의 고유 음악 제정이 필요하다'는 민족주의적인 것이다. ㉡에서 '후세 사람이 선인이 만든 글자를 함부로 바꿀 수 없었다'라고 한 것은 '중국 선인들이 만든 문자를 우리가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사대주의적 주장이므로, ㉠의 주장과 상반된다. 답①

15. ㉠에 나타나는 것은 현실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하여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는 자세이다. ?에서는 부정적 현실을 '겨울'로, 새로운 조류를 '봄'으로 비유하여, 바뀐 조류를 타고 매진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과 상황 인식과 대처 방향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답⑤

16. ㉢은 아무 장애 없는 좋은 기회라는 뜻이므로, '좀처럼 얻기 어려운 좋은 기회'를 이르는 ?'천재일우(千載一遇)'가 가장 적절하다. ? 갑론을박(甲論乙駁) : 서로 자기의 의견을 내세워 남의 의견을 반박함. ?

공평무사(公平無私) : 공평하고 사사로움이 없음. ? 동문서답(東問西答) : 묻는 말에 대하여 아주 판관인 엉뚱한 대답. ? 백년하청(百年河淸) : 아무리 바라고 기다려도 실현될 가능성이 없음. 답④

17. 세종의 음악 정책에 담긴 지향점은 전통 문화를 재인식하고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여 민족 문화를 활성화함과 동시에 외래 문화 또한 창조적으로 수용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세종의 우리 음악에 대한 주체적 인식이 우리 문화의 세계화를 지향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찾을 수 없다. 이는 당시 세계라는 개념 자체가 중국에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한다. 답①

18. ㉠은 한자어 '금슬(琴瑟)'이 형태와 의미가 모두 달라지면서 고유어인 '금실'로 파생된 예이다. ? 역시 한자어 '중생(衆生)'이 형태와 의미가 달라지면서 고유어인 '짐승'으로 파생된 예이다. 이에 비해 ?은 사이시옷 현상에 따라 의미는 변하지 않고 표기 형태만 달라진 예이고, ?는 형태와 의미가 모두 달라지지 않은 예이다. 또한 ?는 의미는 달라졌으나 형태가 달라지지 않은 예이고, ?는 한자어 '우뢰(雨雷)'와 고유어 '우레'가 동시에 존재하는 형태이다. 이 경우 '우뢰?우레'로 보는 것은 유사성으로 인한 오분석(誤分析)의 사례이기도 하다. 답③

<언어>

19. (라)의 '이렇게 유한한 요소로 들어보지도 못한 새로운 표현을 창조해 내는 것이 인간이다'에서 인간의 언어는 새로운 말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창조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마)의 '어제의 일이나 다른 곳의 일을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에서 이러한 창조성이 일상 속에서 전위되어 발휘될 수 있다는 것 또한 확인된다. 따라서 ?는 글쓴이의 견해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답④

20. (다) 문단의 첫 문장을 보면 '의미에 대한 언어 표현이 언어 사회마다 다른 것은 이들을 연결시키는 약속이 다른 데서 기인하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언어의 사회성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약속이 필요한 이유는 언어 표현(말소리)과 그것이 지시하는 내용(의미) 사이의 결합이 자의적(恣意的)이기 때문이다. 답⑤

21. (라) 문단은 벌의 춤이 한정된 정보만을 전달하는 데 비해, 인간은 음소 및 단어와 그것들을 결합시켜 새로운 문장을 만든다는 언어의 창조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조어법(造語法)과 관련된 언어의 창조성을 예시한 ?가 일치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답④

22. ㉠은 '의사 소통 수단으로서의 언어 일반'의 의미로 ㉡와 쓰임이 같다. 이에 반해 ?은 '이야기·화제'의 의미를, ?은 청자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기능적 의미를, ?는 '어투'의 의미를, ?는 '소문'의 의미를 지닌다. 답②

23. (나) 문단의 내용을 이해하면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다. ?은 개짚는 소리를 언어마다 다르게 발음한다는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④는 '실제 소리와 언어 표현은 차이가 있다'를 통해 확인·추리할 수 있으며, ?는 (나) 문단 첫째 문장과 둘째 문장에서 언급된 '언어의 자의성'에 대한 개념에서 추리할 수 있다. 그런데 ?은 (나) 문단의 내용에서 어긋난다. 이는 소의 울음을 '음매'라고 발음하는 것은 자의적인 것일 뿐이며, 실제 소리와 언어 표현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그것의 정확성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답③

24. 문맥으로 보아 '전위(轉位)'란 현재 여기에 없는 상황을 전달하는 것이다. (마) 문단에서 '전위'의 예로 제시된 것은 시간적 전위와 공간적 전위에 관한 것이다. ?는 현재 여기에 없고 안방에 있는 책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적 전위에 해당하는 예가 된다. 답⑤

<수필/희곡>

25. (가)는 십일면관음보살에서 느껴지는 주관적 감흥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고, (나)는 객관적 사실과 지식을 가미하면서 무량수전과 주변의 풍경, 무량수전과 절 밖을 이어 주는 석축 등으로 시선을 옮겨가며 서술하고 있다(?,?). 또한 (가)는 바로 곁에서 살아 움직이는 듯한 관음보살을 표현하고 있고, (나)는 대체로 객관적, 묘사적, 정적인 태도로 무량수전을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가), (나) 모두 현재의 시각에서 서술하고 있으므로 ?는 (가)와 (나)의 차이점으로 적절하지 않다. 답②

26. 먼저 글에 제시된 내용과 제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구분해야 한다. ?는 (가)의 제제인 관음보살의 전신을 영상화한 것이며, ?은 글쓴이가 관음보살을 살아 움직이듯 표현한 내용을 영상화한 것이다. ?는 마지막에 글쓴이가 관음보살을 쓰다듬는 내용을 영상화한 것이고, ?는 관음보살에서 받은 글쓴이의 느낌을 사실대로 들려주는 것이다. 그러나 관음보살이 옥피리를 불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은 (가)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은 추가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답①

27. (가)에서 필자는 비생명체인 십일면관음보살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의 뜨거운 피를 느끼고 있다. 따라서, 차가운 돌에 뜨거운 생명을 붙여넣는 시를 쓰고 싶다는 ?의 내용이 필자의 느낌과 유사하다. 답④

28. <보기>의 '창작, 수용, 감동'의 대상에 해당하는 요소를 연결짓는 문제이다. ㉠에 해당하는 요소는 의상 대사가 부석사를 '어떻게' 창작했는가이고, ㉡에 해당하는 요소는 필자가 부석사에서 '무엇을' 느꼈는가이며, ㉢에 해당하는 요소는 필자가 의상 대사에게서 '어떤' 감동을 느꼈는가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부석사는 의상 대사의 '안목과 미덕'이 반영된 창작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부석사로부터 받은 느낌을 '순리의 아름다움'이라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부석사를 안목과 미덕으로 지은 의상 대사에게서 '사무치는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 답①

29. 본문에서 각 그림에 해당하는 진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은 두 번째 문단에서 견문한 '기둥 높이와 굽기, 문창살의 비례'에 해당한다. 그리고 ?는 '추녀의 곡선과 그 기둥이 주는 조화', ?는 '안양문에서 바라본 먼 산', ?는 세 번째 문단에서 견문한 '부석사 석축'에 해당한다. 그러나 ?은 아치형의 돌다리로 (나)에 나타나 있지 않다. 답③

30. '그리다1'과 '그 : 리다2'는 <보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기 형태는 같으나 의미가 서로 다른 단어들이며, ' : '은 앞 음절을 길게 발음하라는 장음(長音) 표시이다. 그리고 '동(타)'는 타동사, 즉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를 의미한다. (가)의 ㉠'그리다'는 <보기>의 '그리다2'의 '?어떤 모습을 만들어 내다'에 해당하며, ㉢'그리다'는 <보기>의 '그리다1'에 해당한다. 그러나 ?의 '그리다'는 <보기>의 '그리다2'의 '?마음으로 상상하거나 떠올리다'에 해당하므로 잘못된 설명임을 알 수 있다. 답⑤

<고전시가><현대시>

31.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다)작품은 정지용의 '향수(鄉愁)'로 고향과 그곳에서의 추억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으며, '넓은 벌'은 시적 화자가 간절하게 그리워하는 고향의 자연물 중의 하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경험해 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가리키고 있다는 ㉔의 설명은 그릇된 것이다. (가)의 '썰산'이나 (나)의 '슈국', '뫼', (라)의 '산협촌' 또한 모두 현실적 제재이지만, 화자의 내면적 지향을 투사하는 대상으로서 함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답④

32. 각 연에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시어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다. 후렴구는 일반적으로 시 전체의 통일성, 연과 연의 구분, 운율 형성 등에 기여한다. 그러나 이것은 시상 및 내용의 전개 과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㉑은 악률을 맞추기 위해 사용된 일종의 조흥구, 혹은 여흥구이므로 ?,?과는 관계가 없다. ㉑은 '?', '뿔' 음을 연속적으로 사용하여 음악적 효과를 얻고 있지만, ㉒은 그렇지 못하므로 ?는 답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시상의 자연스러운 전개는 후렴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는 답이 될 수 없다. 답④

33. (가)의 화자는 현실 적응에 실패하여 현실 도피처로써 '청산을 택했지만, 현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삶의 고독과 비애를 느끼는 존재이다. 반면 (나)의 화자는 세속에 초연한 채 자연과 더불어 유유자적 여유를 즐기며 살아가고자 하고 있다. <보기>에서 '갑'은 세속적인 현실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강직한 사람으로, '을'은 현실의 변화에 알맞게 대처하며 유유자적 살아가는 사람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답이 될 수 있다. 답③

34. 시의 흐름을 파악하여 생략된 시어를 추리해야 한다. 4연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삶의 고독감이 주된 정서이며, 내용도 '이러저러 낮은 지내왔지만 밤은 또 어찌할 것인가'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시어는 '울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이라는 추리가 가능하다. 답③

35. ㉑을 현대어로 풀이하자면 '낚시질을 즐기면서 자연에의 도취 또한 즐기겠다'이다. '낚시질'은 실생활과 관련된 삶의 문제인데, 시적 화자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아름다운 자연에서 느껴지는 흥(興) 또한 함께 취(取)하겠다는 말이다. ?는 전공을 살릴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상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발상과 표현이 ㉑과 유사하다. 답④

36. (다)시는 전체적으로 고향의 훈훈한 인정과 포근함을 그려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2연에서 그려지는 것 역시 바깥의 바람소리에도 불구하고 혼곤히 잠에 빠져 들어가는 늙으신 아버지의 모습이다. 그 모습은 비록 가난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늑하고 평화로운 광경으로 서글픈 아버지의 노년이 연상되지는 않는다. 답②

37. 시를 감상할 때 내재적으로 접근하는 데는 시어의 상징성, 정서적 효과, 묘사된 대상의 이미지, 표현 방법의 특징과 같은 요소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③에서처럼 이국적 소재를 끌어 쓴 이유를 추측하려면 시 자체의 내적 의미가 아닌 작자의 의도나 시대 현실과 결부시켜 이해해야 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외재적 접근 방법이 된다. 답③

38. (다),(라)에 나타나 있는 시적 화자의 모습을 종합하면, 화자는 어두운 시대 현실 속에서 고독감과 우수를 느끼면서 고향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지니고 있는 섬세한 성격의 소유자로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④'고향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한다'는 (다),(라)의 내용과 정

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답④

39. ㉑,㉒는 시적 화자가 동화되어 살고 있는 자연이고, ㉓는 그리운 고향의 한 부분이다. 그리고 ㉔는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의'를 전설 바다의 파도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㉑~㉔는 모두 자연적 대상이며 이상적인 세계에 대한 시인의 긍정적 지향이 구체화된 것이다. 반면 ㉑의 공백한 '하늘'은 텅비어 있는, 그래서 쓸쓸함과 우수가 느껴지는 '하늘'로서, 도시적 이미지가 결합된 자연물이면서 비애와 고독의 부정적 정서가 투영되어 있다. 답⑤

<인문>

40. 루소는 자연 상태에서 선하고 자유롭고 행복했던 인간이 문명이 들어서면서 악해지고 불행해졌다는 전제하에 이에 대한 처방으로 '자연 상태의 인간을 증시하는 교육'을 들고 있다. 즉, 문명의 발전으로 이기적 욕망이 확대되면서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문명의 발전을 인성의 발전과 동일시하였다'는 이 내용과 반대된다. ?는 제 3문단에서, ?은 제 4문단에서, ?는 제 4,5문단에서, ?는 제 5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답①

41. 루소가 말한 '교육'의 핵심은 제 5문단에 잘 나타나 있다. 루소는 자연 상태의 인간이 본래의 천진무구함을 유지하면서 정신적·육체적으로 스스로를 도야해 가는 것을 교육의 원칙으로 삼았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유로우면서도 정직과 미덕을 갖춘 도덕적 인간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보았다. 이것은 자유롭고 능동적인 경험을 통해 자아의 독립과 개성을 이루게 하려는 태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답③

42. ?,?,?는 생존권 확보의 차원에서 꼭 필요한 욕구이며, ? 또한 생존권 확보를 위해 천재지변 없이 농사를 짓고 싶은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에서 잉여 농산물로 농토를 사들인 것은 기본적 욕망의 충족을 넘어선 필요 이상의 욕망이라고 볼 수 있다. 답②

43. '가공(架空)'은 사실이 아니고 상상으로 지어낸 일, 근거 없는 일을 말한다. '?일부러 꾸며 놓음'이 이에 해당하며, ?,④,⑤는 '가공(加工) ; 사람이 원료나 다른 제품에 손을 더 대어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일'과 의미가 통한다. 그리고 ?은 '불가능'에 해당한다. 답①

44. ㉑은 실제 생활에 필요한 것 이외에는 어린이 스스로의 자유로운 경험에 따르도록 하라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아이들을 제멋대로 자라도록 내버려두는 것으로, ?와 같은 반박이 가장 적절하다. ①은 루소의 교육이 지식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면에 대한 찬성 의견이며, ③은 인간의 성장성을 무시한 채, 유년기의 교육에 대해 선입관을 가지고 바라본 결과이다. ④ 역시 루소의 자연적 교육이라는 의미를 방법 측면이 아닌 환경 측면에서만 바라보고 있으며, ⑤는 '자유 방임적 교육'이라는 핵심에서 벗어났다. 답②

<사회>

45. 이 글에서는 역사상 모든 인간 사회들이 물질적 풍요라는 가치를 추구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는 문화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각 지역의 다양한 부족의 생활을 예로 들어 논증하고 있다. 이 글의 요지는 마지막 문단에 집약되어 있는데, '다양한 문화와 그 가치의 인정'이 바로 그것이다. 답②

46. 논지를 전개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 글에서는 제 1문단의 쿵 족, 제 2문단의 새홀 족, 제 3문단의 콰규틀 인디언, 제 4문단의 마링 족 등 다양한 사례를 들어 문화의 다양성과 상대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답③

47. ㉠~㉢은 인간의 물질적인 안락함과 편리함을 얻기 위해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은 물질적인 안락함과 편리함과는 다른, 보다 더 높은 위신과 권위를 얻기 위한 행위를 의미한다. 답⑤

48. ㉠은 앞뒤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당장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는데, ? 또한 '당장은 실속이 있는 듯 보이나 결국은 손해를 보게 된다'는 뜻이므로 서로 상통한다. ㉡는 남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것을, ㉢은 변덕스러움을, ㉣는 정분이 두터운 이웃을, ㉤는 중심이 없이 이러니저러니 하면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음을 뜻한다. 답①

49. 필자는 문화 상대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타인의 행동이나 취향도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상대주의적 관점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은 '~당연해'하는 어휘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중·고교 학생들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므로, 각 개인의 행동이나 취향이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상대주의적 관점을 적용시킬 수 없다. ㉠은 대중가요도 누가, 어떻게 이해하고, 잘 가꾸는가에 따라 고급문화가 될 수 있다는 상대주의적 관점이며, ㉡도 사람마다의 식성을 고려한 상대주의적 관점이고, ㉢ 또한 사주팔자를 보는 일부 사람들도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상대주의적 관점이며, ㉤도 컴퓨터 게임을 즐기는 청소년들이 모두 같은 이유에서가 아닌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이유에서 즐긴다는 상대주의적 관점을 취하고 있다. 답③

<고전산문>

50. (가)에서는 가을 물가의 황혼녘이라는 배경이 한림의 비탄을 깊게 하며, 그 비탄의 정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고조되고 있다. 특히, 벽 위에 남겨진 사씨의 글을 발견하면서 한림은 더욱더 회한에 젖어들고 있다. (나)에서는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 때문에 도적들에게 쫓기는 한림의 위기 상황이 더욱 급박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나)에서 한림의 말은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한 것으로 내면적 갈등과는 거리가 멀다. 답③

51. 유한림이 회사정에 간 이유(?)와 물에 빠져 죽으려는 동기(?)는 지문에 직접 제시되어 있으며, ?의 질문 내용은 촌사람들의 대답과 문맥에서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의 도적의 행동은 사건의 전개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다. 그러나 구원자(묘희와 부인)의 배가 위기 상황에서 '홀연히' 나타난 것은 사건의 우연성과 관계 깊은 것으로서, 인과적 필연성이 없는 사건 전개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답④

52. 사씨의 글은 누명을 쓰고 방랑하다가 비탄을 이기지 못하고 자결하려 할 때 남긴 것이다. ?는 초나라의 굴원이 참소에 의해 쫓겨났다가 자결한 심경을 읊은 시조인데, 비통함과 한의 정서가 사씨의 글과 유사하다. ?은 지조를 지키겠다는 결의를 표현한 것이며, ㉢은 쉽게 변하는 사람의 모습을 표현했으며, ?는 임(단종)을 유배지에 호송하고 돌아오는 슬픔을 무심히 흐르는 물에 의탁하여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태도를 강조한 시조이다. 답②

53. <보기>의 제문은 한림의 심경, 추억, 자기 행동에 대한 회한, 명

복을 비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 앞에는 혼인 직후 화평했던 시절에 대한 추억을, □ 뒤에는 요망한 참언에 속아서 부인을 쫓아낸 자신의 잘못된 행실에 대한 반성을 담고 있으므로, □에 들어갈 적당한 내용은 '부인이 평상시에 보이던 품행과 덕성' 등이다. 답①

54. (가)에서는 잃어버린 부인과 자식을 찾아 헤매는 비통한 심정이 그려지고 있으므로 '가족의 가치'에 대한 전통적 인식을 발견할 수 있고, (나)에서는 쫓기는 상황의 급박함을 잘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을 배경으로 한 것은 당시의 사대주의 사상의 반영이라 할 수 있을 뿐, 세계화와는 거리가 멀며(㉡), 이 글에는 당대의 풍속에 관한 내용은 들어있지 않다(㉢). 또한 집단의 고뇌와 갈등보다는 개인적인 고뇌를 보여주고 있으며(㉣), (나)의 내용을 활극(난투 장면을 주로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난투 장면을 남발하는 대중소설은 지양해야 할 것이지 경쟁력을 견줄 만한 것은 아니다(㉤). 답①

<현대소설>

55.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적 소재는 '감자'와 '울타리'이다. '감자'가 '나'를 향한 점순이의 연정을 상징한다면, ㉠의 '울타리'는 마름집 딸인 점순이와 소작농의 아들인 '나'의 접근을 가로막는 사회 계층적 금기를 상징한다. 그러나 ㉡의 '울타리'는 '일거리'라는 의미만을 지니고 있다. 답⑤

56. '쌩이질(씨양이질)'은 '한창 바쁠 때에 쓸데없는 일로 남을 귀찮게 하는 것'을 뜻하며, ㉣와 유사하다. 그러나 ㉠은 '사이나 감정이 마음 먹은 것과 틀려서 싸 돌아서다', ㉡는'미운 티를 내며 빙정대다', ㉢은 '편을 들다', ㉤는 '신이 나서 도도하게 굴다'의 의미이다. 답④

57. ㉠에서 호의를 거절당한 것은 점순이의 연정이 증오와 복수심으로 바뀌는 계기가 된다. '나'가 점순의 마음('나'를 좋아하는)을 안다고 가정한다면(사실, 작품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지만), ㉠과 같은 행동에서 점순이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은 ㉠,㉡,㉢,㉣ 등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는 점순이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생각하기 힘든 내용이다. 답⑤

58. '감자'는 '나'에게는 점순이의 무시나 동정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점순에게는 소중한 연정의 표현물이며,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매개체이다. 따라서 나를 좀 보아달라며 임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이 정답이다. 답③

59. (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며, <보기>는 3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3인칭 소설은 소설 밖의 서술자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외면만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기 때문에 인물이 처한 상황이나 사건에 객관성이 부여된다. 답⑤

60. 이 작품은 '나 - 소극적, 점순 - 적극적'이라는 인물의 대조적 성격을 통해 주요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으므로 ㉣는 적절치 못하다. 답④

<과학>

61. 이 글은 '난법가(難法歌)'에서 만두를 큰 스님과 작은 스님에게 나누어주는 상황과, '계토산(鷄兎算)'에서 달과 토끼의 마리 수를 알아맞

춰야 하는 문제 등을 예로 들어 우리 선조들의 수학적 사고의 특징을 살피고 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볼 때, 우리 선조들은 현실 생활과 밀접한 구체적인 문제 상황을 설정하고, 이의 해결에 수학적 사고를 적용시켰음을 알 수 있다. 답⑤

62. 이 문제에 대한 열쇠는 '난법가'와 '계토산'의 풀이에 대해 '직관에
만 의존하였을 뿐 수식에 입각한 논리적인 추론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비판'하는 것에 대한 저자의 재비판에 있다. 즉, 서양식의 연립방정식
의 추론 과정이 '난법가'에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제 7단락 세 번째
문장 '그러나 이들 풀이 과정에도 분명히 가설과 논리적인 추론이 작
용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와 ?은 '난법가'와 관련 있고, ?는 연립
방정식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는 '난법가'나 '연립방정식' 어느 것과
도 관련이 없다. 답①

63. ㉠은 '난법가'의 문제를 서양식의 연립방정식으로 식을 세운 것으
로, 만두 백 개를 '큰 스님'에게 세 개씩 나누어 주고 '작은 스님'에게
는 세 사람 당 한 개씩 나누어준다는 식이다. ㉡의 '스님이 백 명'이라
는 것은 ' x (큰 스님의 수) + y (작은 스님의 수) = 100(전체 스님의
수)'에 해당한다. 답②

64. ㉢은 우리 선조들의 수학적 사고를 낫설고 기발한 착상으로 여기
는 태도이다. 이는 서양식 풀이과정에 익숙한 사람의 입장에서 본 것
이므로 ?, ?, ?, ?와 같은 근거를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은 '직관에
만 의존하였을 뿐 ~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연립
방정식에 의한 풀이보다 더 논리적인 것은 아니다. 답③

65. 필자는 마지막 두 문단에서 우리 선조들의 수학적 사고에도 서양
식 사고 못지 않은 가설과 논리적인 추론이 작용한다는 것을 밝히고,
현재까지 그것이 계승되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바탕
으로 한 학술 발표회의 주제로는 '전통 수학의 재평가와 계승 방안'이
적당할 것이다. 답⑤